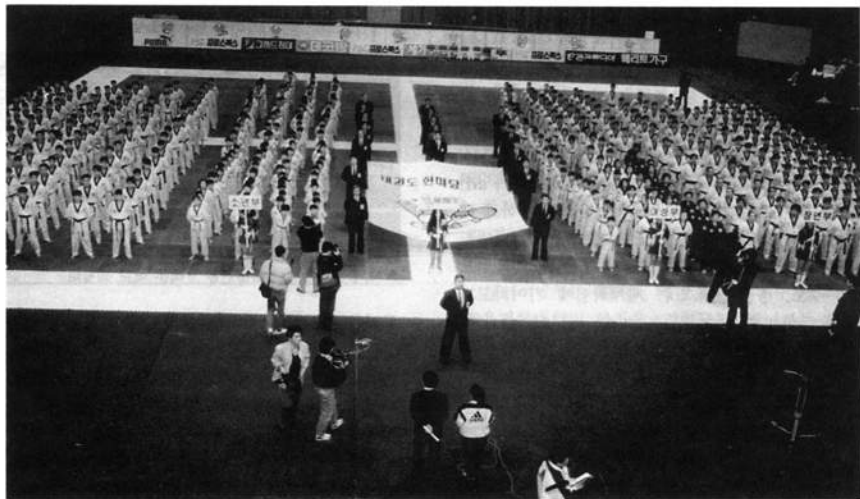


제 1회

태권도 한마당 '92



“절도있고 힘찬 품새, 태권도의 위력을 한눈에 보여준 격파”



▲개회식 모습

땀서 자랑, 힘자랑을 과시한 태권도 한마당이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본모습을 되찾는 한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창설된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로 나뉘어 일반품새, 창작품새, 건강품새 등 땀서자랑과 위력격파, 응용격파등 힘자랑 경연이 있었다.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대회에는 총 392팀, 1346

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참가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평균 3천여명에 달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와 흥미진진하게 경연대회를 관람했고 태권도 행사이래 최대의 언론기판의 높은 취재 경쟁을 엿볼 수 있었다.

개회식

12월9일 오후 4시의 개회식에 앞서 식전공개행사로 범기철사범의 태권무 “천지의 혼” 공연이 있었다.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기도하듯한 자세로 시작된 태권무는 태권도의 품새와 전통한국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서 범기철사범이 태권도를 생활화하고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안한 것. 범기철사범은 현재 일본 동경외국인학교 교사로 태권도 한마당 참가를 위해 귀국한 것이다.

이어 상명여대의 치어리더시범이 흥겹게 진행되며 태권도한마당의 흥을 돋구었다.

4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은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 겸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겸 국가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문태갑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세창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한마당간지는 국기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태권도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태권도종주국으로서 세계속에 태권도 문화를 지속적으로 주도, 공급할수 있는 체계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별 참가팀 현황(경연자)

소년	청년	장년	여성	계
60	244	36	33	373명

■종목별 참가 현황

구분	종목	인원	계
경연	품새	292	769
	창작품새	54	
	건강품새	182	
	손날격파	19	
	주먹격파	22	
	발격파	26	
	높이차기	40	
	멀리차기	56	
	종합격파	78	
시범	특별	125	125
	단체	495	495
총계			1,389명



▲ 최세창회장,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해 경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 식후공개행사 축하공연을 보여준 여군 의장대

창설한 대회임을 밝히며 태권도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무도 스포츠로서의 가치관 속에 생활체육으로서의 가치를 점목시킴으로써 태권도의 질적 향상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도 치사를 통해 태권도가 선수중심의 경기위주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한차원 높게 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와 태권도협회의 노력에 대해 치하한다고 했다.

식후공개행사로 는 여군의장대의 축하 공연에 이어 국가 대표시범단의 시범과 은광역고 사물놀이패 공연, 이어 제4대 대한태권도협회장상을 역임한 바 있는 노병직씨의 품새시범이 있었다.

노병직씨는 7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태권도 품새를 끝내 노무도인의 건강함과 정신력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노병직씨는 현재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태권도한마당 참가를 위해 귀국한 것이다.

또한 특전사 시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권도 시범 및 민속무용 공연이 진행되었다.

대회 둘째날과 셋째날 특별 시범 무대에는 은광여고 학생들이 펼친 건강 품새,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태권도 체조 "심공", 상명여대 치어리더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품새경연대회



품새는 현재 수련되고 있는 기존 품새를 누가 절도있고 힘차게 잘할 수 있는가를 경연하는 일반 품새와 참가자들이 창작한 품새의 우수성을 심사한 창작품새, 태권도의 생활스포츠화를 위해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한 태권도 체조 및 에어로빅 경연을 펼치는 건강품새로 나뉘어 실시 되었다.

일반품새부분은 기존의 태극 1장부터 일어 품새 중 10명 이내의 단독, 혹은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유품자는 태극에서 금강까지 유단자는 고려에서 일어까지의 품새 중에서 선택한 품새와 지정받은 품새를 절도 있고 힘차게 보여준 태권도수련자를 품새부분 우수자로 선발했다.

첫날 예선전에서는 소년부에서 26개팀의 출전자 중 박상균(성광체육관)의 5개팀이 결승에 올라 대회 둘째날 빼어난 솜씨 자랑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결승전이 펼쳐졌다.

청년부에서는 40개팀이 출전, 안석호(경희대)의 5개팀, 장년부는 13개팀중 이규현씨, 여성부 13개팀중 서영애(청북선체육관)의 1개팀이 결승에 진출해 우수자로 선발되었다.

창작품새 부문에서는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창작한 품새경연으로 총 23개팀이 출전했다.

청년부에서는 경희대 정근표와 김희준조, 대한체육과학대학의 한찬욱, 김형규조, 장년부는 태양체육관의 우성인, 여성부는 체육선교신학교 김유정의 3명이 심판들로 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건강품새는 일반인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체조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작품이 많이 선보여 관중들의 인기를



▲상주 주부대학에서 태권도를 연마해온 어머니들이 품새경연에 참가해 실력을 보이고 있다.

한몸에 받았다.

총 24개팀에서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가운데 우수팀으로는 청년부가 인천대의 홍승기의 11명, 대한체육과학대학 권인창의 8명, 체육선교신학교 송원우의 7명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여성부는 경희대에서 출전한 송선영의 10명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격파경연대회



태권도인들 중에 누구의 위력이 가장 센가를 가름한 최초의 공식대회로서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도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송판조각이 갈라지고 기왓장조각이 주먹에 깨어지고 붉은 벽돌이 손날에 갈라지면서 관중들에게 태권도의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높이뛰어차기는 소년부가 높이 2미터, 청년부가 2.5미터 높이의 송판을 차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선에서 소년부는 12명중 김현우(화랑체육관)의 4명이 격파에 성공하고 결승에 진출하였으며 청년부에서는 28명의 출전자 중 이경택(경찰청)의 2명이 결승에 진출하였다.

손날격파부문에서는 청년부가 1차전에서 모두 붉은 벽돌 한개를 격파하는데 성공, 전원 2차전에 통과하였으며 벽돌 2개를 깨뜨리는 2차예선에



▲ 높이 뛰어차기 경연

서는 이호진(대동체육관)의 6명이 성공, 결승에 진출했다.

멀리뛰어차기는 장애물을 넘어 소년부가 2.5미터, 성인부가 3미터의 송판을 격파함으로써 결승에 진출했다.

소년부에서는 무지개체육관의 전준영, 학생중의 이재동, 장석체육관의 김성훈, 허영희, 이승훈, 청년부에서는 경희대의 홍순철, 이안호, 대한체육과학대학의 오영화, 체육선교신학교의 이성진이 우수자로 선발.

발격파부문에는 2센치미터 두께의 송판을 3매 이상 깨뜨리는 1차예선에서 23명의 출전자 중 18명이 통과, 2차예선에서는 김영국(체육교역)의 7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장년부의 경우 3명이 출전 모두 1차예선을 통과하는 막강파하의 실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2차에서는 강신철씨(남창체육관)가 결승에 진출하며 우수자로 선정되었다.

주먹격파는 누가 기와를 가장 많이 깨는가로 최강자를 뽑았는데 1차에서 10매, 2차에서 15매를 깨고 결승에서 16매 이상을 켤 대동체육관의 김호진, 상무관의 오정주, 경희대의 최형호, 장년부의 강원 효성체육관 정병모 등 4명이 최강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격과경연대회 실시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격과물 규격을 정하였는데 벽돌격과물은 크기가 일반 건축용 적벽돌과 같은 대신 강도는 최저 1백30킬로그램으로 일반건축용 벽돌(2백20킬로그램/제곱센치당)보다 약하게 했다. 송판과 기와는 건축용 자재와 강도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제작했다.

또한 격과과정들을 새롭게 고안하고 품새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태권도에 보다 과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12월11일 오후 5시30분에 전경기를 마치고 부문별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우수자 모두에게는 협회에서 특별히 주문생산한 코끼리 모형의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이어 경기장에서는 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 및 운영자들을 위한 카테일파티가 성대히 마련되었다.

푸짐한 경품행사

매일 경연대회 마지막 시간에는 푸짐한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자동차, 인켈오디오, 국어사전, 구두티켓, 오기나와 항공권, 제주도 항공권, 태권도 용품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마지막날 이번 대회 최고의 경품으로 자동차 경품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리라공고 2학년에 재학중인 태권도부와 장형철 학생.

태권도 한마당 화제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태권도 한마당에는 5살 어린이로부터 80에 이르는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없이 평소 연마한 태권도 솜씨를 자랑했는데 참가자 중에는 최고령자로 여성부 건강품새에 출전한 스태체육관의 입담순 할머니를 꼽을 수 있다. 서울 흥제동 스태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연마하며 건강을 지켜온 할머니 10명은 태극 2장을 멋지게 소화하며 태권도가 노인들에게 적당한 운동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불광권민조기회의 할아버지회팀은 김순철씨(70세, 4단)와 7명이 창작품새를 보이며 결승에 진출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김순철 할아버지는 창작품새 뿐만 아니라 주먹 격과부문에도 출전해 노력장을 과시했다.

한편 5대제자가 한담이 되어 품새와 격과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40년간 태권도를 연마해온 임순호씨(56, 통일체육관)를 정점으로 이씨의 제자인 김세준씨, 박완규씨, 두 박씨의 제자인 김영국, 오재대씨, 또 그 제자인 김형균, 김세준씨, 끝으로 5대인 국민학생 김도형, 승형진군이 한자리에 서 세대를 초월한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대회를 마친후 열린 카테일파티에서 흥중수부회장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태권도 소녀 이명순 어린이

백혈병 이기고 한마당 잔치에 나와 태권도인들에게 감사의 인사



휴전선 남방 민통선내에 있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작년 12월 백혈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사연을 접한 뒤 전국의 태권도인들이 1천2백여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92년 5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골수 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명순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고 태권도 한마당에 참석해 태권도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명순 어린이는 태권도 한마당 마지막 날 행사가 진행될 올림픽 펜싱경기장을 찾아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몸이 완전히 다나

오면 태권도를 계속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명순 어린이는 91년 5월19일 강원도 어린이 태권왕겨루기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낸바 있는 태권도 꿈나무였는데 『다시 태권도복을 입고 뛰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마현국민학교에서 이명순어린이에게 태권도를 지도했던 사정옥 선생님(현재 잠곡국민학교 교사)과 어머니 이상순씨도 함께 참석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명순 어린이는 93년 2월에 강원도 철원 김화여중에 진학할 예정이다.

태권도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태권도한마당,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향후 방향 정립해야

☞

먼 훗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태권도가 제모습을 갖출때,
오늘의 이 태권도한마당은
그 주춧돌이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

태권도 내실화를 위한 몸부림이랄수 있는 92태권도 한마당을 기획단계부터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하나의 행운이었다.

태권도가 전세계 123개국에 3천만명의 동호인을 확보, 세계적인 스포츠이면서도 정작 중공국민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맛보고 있는 터라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가 향후 태권도의 발전방향울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었다.

연초부터 기획에 들어간 이번행사는 협회창립 30년이 넘도록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출발단계부터 순탄하게 진행될리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태권도=겨루기」로 동식이 굳어질만큼 태권도가 겨루기일변도로 발전을 거듭, 격파니 품새니 하는 것은 일종의 과의성격을 띤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을 깨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면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12월9일부터 3일간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개최한 태권도한마당은 태권도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해도 무방했다.

승부를 가린다고보다 참여에 더 큰 비중을 둔 뜻한 대회 첫날, 3천여명의 관중이 운집해 대회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올림픽을 치른후 국민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가 어지간히 큰대회가 아니고는 경기장을 잘 찾지않는 것이 현실이고보면 관중들의 호응은 기대이상이었다.



▲ 어린이들이 보여준 건강폼새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육상선수권대회나 주니어 피겨스케이팅대회가 관중들의 철저한 외면속에 치러진 것에 비하면 이번대회가 관중 동원면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출발한 셈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남녀노소가 골고루 참여한 건강폼새와 학생들이 주류를 이룬 창작폼새가 이어질때면 참가자의 긴장감과 관중들의 박수가 어우러져 겨루기대회와는 또다른 태권도경연장 분위기를 맞볼수 있었다.

50~60대 노장들이 출전한 건강폼새는 태권도가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5대제자」들이 출연, 시대를 뛰어넘는 폼새한마당을 펼쳤고 태권도 한가족 5명이 보인 폼새에선 진한 감동마저 느끼게 했다.

더욱이 택견과 봉산탈춤의 전수자들이 펼친 특별무대에서는 전통문화속에 내재된 태권도의 기

본 몸사위를 읽을 수 있었다.

진지하기는 관중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국민학생들로부터 노인부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관중들은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을 질러댔다.

“태권도에 저런 것도 있구나”

태권도를 취재한지 얼마되지않은 한 기자는 겨루기만 태권도인줄 알았다가 격파시범도중 깨진 송판이 공중에 흩어지는 광경을 보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푸른눈의 서양인들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격파와 절도있는 폼새에 매료된듯 연신 카메라플래시를 터뜨려댔다.

바로 이것이다.

국내 300만명의 동호인이 있다는 태권도, 유단자만 230만을 헤아린다는 태권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었다.

태권도는 겨루기만 잘하는 선수양성만이 능사가 아니요, 폼새와 격파도 함께 연마, 무도 본연

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험난한 세상살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건전한 육체단련과 정신수양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태권도는 무도이며 道는 禮에서 시작해서 禮로 끝남을 일깨워줘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태권도가 국민생활에 접근해 생활체육으로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종목보다도 동호인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활체육과는 동떨어져 행동해 온 태권도는 이번행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런점에서 이번행사에 건강품새 경연을 개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시사적인 면이 많다.

기존품새의 틀에 수련생들을 적용시킬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창작품새를 고안,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앞서가는 태권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

「태권도는 나이들면 하기 어려운 운동」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도 노년층에 맞는 품새고안통들의 노력없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

어떻게하면 한마당행사를 통해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되살리고 생활체육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

이처럼 태권도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큰 의미를 갖는 시점에서 협회가 이행사를 매년 개최키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도 겨루기 일변도의 편향된 발전시각을 갖고 있는 태권도인들과 기존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태권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태권도한마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하면 한마당행사를 통해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되살리고 생활체육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이번행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우선 태권도



▲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5대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새를 보이고 있다.



한마당의 주제의식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제의식이란 한 국가의 헌법처럼 한마당행사의 본질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열린 한마당행사의 기본정신과 혼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무예로서의 위상을 살린 우리문화의 한 분야로 끌고갈 것인가.

아니면 치어걸이 등장하고 서양밴드소리가 난무하는 놀이판으로 갈 것인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평범한 진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가운데서 호호하는 태권도,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태권도를 만드는 것이 태권도한마당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전부가 할 수 있다.

치졸한 상업주의와 타협해 소공연같은 흥행주의의 행사로 흐르다면 그것은 이미 무도본연의 자세를 이탈한 것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뚜렷한 주제의식을 살리고 멋들어진 태권도한마당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번 첫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꼼꼼히보는 것도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다.

우선 품새와 격파경연시 좀더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품새채점은高手들의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둔 「感」으로 이뤄져 대과없이 진행되긴 했지만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채점이 아쉬웠다.

채점유형이 비슷한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처럼 기술적인 면, 예술적인면 외에도 전체적인 조화로움과 예의바름 등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채점한다면 좀더 객관적일 수 있다.

기존품새와 창작품새를 분리하지 말고 이 두가지 품새를 함께 실시해 종합채점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우수가 품새만으로도 훌륭한 경연종목이 되는 것처럼 태권도의 품새도 엄연한 경연종목으로 정착이 가능하고 경쟁이 있어야만 훌륭한 창작품새가 개발될 수 있다.

격파부문에서는 이번에 처음 격파물에 대한 강도와 크기가 규격화돼 태권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러나 대노라하는 최고기량의 선수들이 펼친 경기력은 기대이하로 실망감을 안겨줬다.

체육관마루바닥의 탄력 때문에 파괴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동안 겨루기 일변도의 태권도경기운영이 가지는 당연한 결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와함께 보다 전국적인 참여가 아쉬웠다든가 대회 일정과 장소를 학생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었다.

민 훗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일부로서 태권도가 제모습을 갖췄을 때, 오늘의 이 태권도한마당은 그 주춧돌이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남녀 나란히 종합우승하며 대회 3연패

제3회 세계대학 선수권 대회

1992.10.12~15,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

19개국에서 217명의 선수 출전

92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19회 대학연맹 개 인천에서 선발된 대표선수단은 대회지로 떠나기 앞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둔촌동에 있는 관광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한국체육대학 체육관을 이용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짧은 일정동안 임원과 선수들은 호흡일치 및 시차 적응을 위해 정오에 기상해서 새벽 2시까지 로드워와 스텝겨루기, 발차기를 하며 현지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훈련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대회에 관한 정보는 11월 12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과달라하라대학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Calton 호텔에서 묵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

이정길 대학연맹회장을 단장으로 한 임원6명과 선수 16명 등 총22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선수단은 10월 9일 김포를 출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하였다. 대회조직위원회 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서 수숙을 마치고 과달라하라 대학에서 관리하는 휴양소-호텔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바로 Calton 호



문원재/
남자대표팀코치·한국체육대학교코치



텔로 향하였다. 벌써 몇개 팀이 도착하여 적응훈련에 들어갔다. 우리팀은 방이 없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사범의 도움으로 다음날부터 정상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장거리 여행에 피로가 쌓인 탓인지 여자선수들은 피로한 기색이 보였으나 한결같이 우승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힘찬 함성과 함께 타겟을 차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10월 11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대진 추첨 및 대표자회의가 있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대진표작성을 주최회에서 제대로 못해 다시 만드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은 19개국이었으며 남자팀은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제국 멕시코는 이 대회를 위해 한국에 전지훈련까지 다녀왔다면서 2-3체급을 노리는 등의욕을 보였다. 여자팀 중에서는 강력 대만이 종합우승을 노리고 있었다.

대회 첫날 강적들의 도전 물리치며 금메달 4개 획득

첫날경기는 남자부 핀급 김정오, 헤비급 강승수, 여자부는 핀급 유수진, 헤비급 윤현정선수가 출전하게 되었다. 경기는 오후 4시부터 개교 200주년을 맞은 과달라하라 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팀은 대회첫날, 4체급경기에서 당초의 예상을 뒤엎

고 강력 중화대북, 미국과 호코트의 멕시코의 도전을 일축하며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남자 핀급 김정오 금메달

남자핀급의 김정오선수(경원대)는 국제대회 첫 출전으로 예선에서 앞차기와 뒤차기 기술로 득점을 올리며 무난히 결승에 올라 일본선수 Hattori Daisuke를 1회 1분 20초만에 뛰어 내려차기로 K.O를 시키고 첫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남자 헤비급 강승수 금메달

헤비급 강승수 선수(한체대) 또한 국제경기에 처음이어서 많은 긴장을 했다. 이 헤비급은 신장의 열세에 의해 국제대회에서 종종 실패를 거듭하는 체급이므로 많은 신경을 썼다. 1회전에 신장이 큰 미국선수 Gerge Weissfisch를 원알발 발바퀴 돌려차기로 4:3으로 승리하였다. 준결승에서는 이 시합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남미에서 실력을 인정, 팬임대회에서 우승한 쿠바

선수 Nelson Saenz Miller와 집전을 벌인끝에 3회전에 체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쿠바선수를 발바퀴 돌려차기와 들어찍기로 5:3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대만선수를 가법게 물리치고 우승했다.

•여자핀급 유수진 금메달

시종 예선전부터 윗등한 기량을 보인 유수진 선수(경희대)는 결승에서 대만선수 Ya lin Cheng와 겨루게 되었다. 대만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지만 유수진선수는 노련하고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오른발 발바퀴와 뒤차기로 6:2관정승을 거두며 여자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헤비급 윤현정 금메달

윤현정선수(대한체육과학대)는 이번 대회의 가장 수훈선수. 준결에서 미국 Christin Bayley 선수(약 110Kg추산)와 결승에서 독일선수 Bettina Hipe



선수(약 2m 신장)를 돌려차기와 받아차기로 각각 4:1, 4:3으로 물리쳐 근래에 들어서 보기 드물게 남·녀 공동으로 해비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둘째날 경기서 여자부 주 최국 멕시코에 모두 저

●남자페더급 안홍엽 금메달
안홍엽선수(대한체육과학대학)는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이끌며 준결승에서 일본선수의 부상에 의한 기권으로 결승에 올라 스페인 선수 Valentin Sanchez를 돌려차기와 뒤차기로 우세한 경기를 이끌어 5:3으로 승리를 거두며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라이트급 박세진 금메달
박세진선수(경희대)는 국제경험이 있어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예선에서 1점도 내주지 않고 우세한 경기를 이끌어 결승에 올라 이 대회 복병인 쿠바 선수 Roberto Abrev를 맞이하여 손에 땀을 쥐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다 3회전에 돌려차기로 득점을 획득 4:3으로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페더급 김성숙 은메달
김성숙선수(성신여대)는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의 최대 적수인 92 바르셀로나 우승자인 대만의 Ya Ling Tung 선수를 맞이하여 시종 팽팽한 경기를 이끌며 3회전에서 돌려차기와



뒤차기를 서로 주고 받는 접전 끝에 4:4동점으로 우세승을 거두어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주최국 멕시코선수를 맞아 판파직 심판관정도로 우세한 경기를 이끌고도 멕시코선수 Danielav, Chavez에게 3:4로 패해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여자라이트급 윤명숙 탈락
윤명숙선수(상명여대)는 무리한 공격과 신장열세에 의해 멕시코선수 Bertha Jauregua를 맞이하여 5:4로 아깝게 예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3일째 경기서 남자 금 2추 가하여 종합우승 확실

●남자플라이급 맹성재 금메달
맹성재선수(경희대)는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다양한 기술로 결승에 올라 세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멕시코 Ayala Yee

Agustin선수를 맞이하여 1,2회전 득점과 우세 동점인 1:1상황에서 3회전에 올라 뒤차기와 돌려차기로 게임을 우세로 이끌어 2:2동점으로 인한 우세승으로 5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미들급 박종범 금메달
이번 대표팀 주장인 박종범선수(한체대)는 국제경험이 풍부한 선수로서 주특기인 빠른발 돌려차기와 뒤차기로 결승에 올라 멕시코 국민의 관심이었던 멕시코선수 Hugo E. Garcia B를 빠른발과 받아차기로 5:1로 가볍게 누르고 승리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플라이급 장이숙 동메달
세계대회의 우승자인 장이숙선수(상명여대)는 준결승에서 대만선수 Hui Wen Tang을 맞이하여 접전을 벌였으나 상대에게 돌려차기를 허용 4:3으로 저 동메달에 머물렀다.

● 여자미들급 이성미 동메달

이성미선수(성신여대)는 그리이스 Anke Gire를 맞이하여 긴 여행에 피로가 쌓인 탓인지 체력의 열세에 의해 계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쉽게 저 동메달에 머물렀다.

조항미, 시종 우세한 경기 치루었으나 석패

● 남자밴텀급 김병욱 금메달

김병욱선수(한체대)는 월등한 신장과 기술로 결승까지 올라 주최국 멕시코선수 Rafael Zuniga를 맞아 일방적인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에도 동요됨 없이 시종일관 빠른발 뒷발 내려차기로 밀어붙여 5:2로 승리,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남자웰터급 김광수 동메달

김광수선수(한체대)는 준결승전에서 사실상 결승전인 멕시코의 Victor Estrada 선수를 맞이하여 빠른발과 원앞발 받아차기로 5:4로 승리하였으나 멕시코 측의 2시간가량의 소청에 의해 5:5 동점이었으나 우세를 내주고 석패 동메달에 그쳤다.

● 여자밴텀급 이승민 금메달

이승민선수(경희대학교)는 다양한 기술과 파워로서 결승에 올라온 대만선수 Mei Hua Chen를 몸통과 얼굴을 돌려차기로 다양하게 공격 9:2로 압승,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승과 함께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 여자웰터급 조항미 은메달

조항미선수(경희대)는 바르셀로나 웰터급 우승자인 스페인 Elena Benitez M를 맞이하여 2회전까지 2:1로 지고있다가 3회전에 오른발 돌려차기로 상대 얼굴을 가격 다운시켜 카운트아웃이었으나 심판의 운영 미숙으로 승리로 이끌지 못했으며 또 다시 원발 돌려차기로 얼굴을 가격 K.O.직전까지 몰았으나 심판의 편파적 판정으로 4:3으로 아깝게 저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대표 선수단 남·여 나란히 종합우승

19개국 217명의 선수가 참가

해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에서 열린 4일간의 열전 끝에 남자는 금메달 7개 그리고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으며 여자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당초 목표인 남녀동반 우승을 달성하였다. 이번 대회에 두드러진 모습은 쿠바 선수들의 현격한 기량의 향상과 한국 여자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여 대만 선수에 대한 두려움을 씻었다는 점이였다.

또한 외국심판의 게임운영의 미숙과 주최국의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각국 선수들이 모두 각국의 명예를 위해 선전,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었다 할 수 있다.

서울시 종합우승 탈환

제 73 회 전국체육대회

92.10.11~16,
대구 계명대체육관

「알뜰체전·화합체전·통일체전」의 슬로건 아래 달구벌을 뜨겁게 한 제73회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장정으로 막을 내렸다.

15개시도지부와 캐나다·호주·일본·브라질 등 4개 해외동포팀 370명의 선수가 참가한 태권도경기는 서울시선수단이 금 6, 은 4, 동 5으로 전년도 전북팀에게 빼앗긴 종합우승을 되찾았다.

서울시는 고등·대학·일반부 모든부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위인 홈팀 대구를 종합점수 540점차로 제치며 여유있게 우승고지에 안착하였다.

약세로 평가되던 대구시선수단도 금1, 은4, 동5으로 분전하며 종합2위로 홈팀으로서 개가를 올렸다.

한편 전년도 우승팀인 전북선수단은 3위 전남에 이어 4위를 마크, 체전 강팀으로 뿌리를 내렸다.

약세로 분류되던 강원도선수단이 6위로 선전, 눈길을 모았는데 이는 대학부와 일반부에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주효했다는 것이 주변의 분석.

소년체전에 이어 전국체전까지 한 해에 두번이나 큰 행사를 치른 대구시협회는 전 임원들이 일치단결해 대과없는 체전으로 막을 내렸다.



순위	시도	금	은	동	점수
1	서울	6	4	5	2256
2	대구	1	4	5	1716
3	전남	3	4	3	1592
4	전북	4	2	3	1438
5	광주	3	0	5	1234
6	강원	2	1	4	1223
7	부산	2	2	3	1159
8	대전	0	2	4	1047
9	충남	0	3	3	809
10	경남	1	0	4	754
11	경기	0	2	1	652
12	충북	1	0	1	638
13	인천	0	0	3	500
14	경북	0	0	4	457
15	제주	1	0	0	366

올해의 최우수선수상 남자 김제경, 여자 이승민 차지

92년도 전국 우수 선수 선발대회

(92.11.11~13, 국기원)

92년도 대한태권도협회 및 3개 연맹이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체급별 우수선수들을 선발한 이번 대회는 남자 224명, 여자 120명 등 총 344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1, 2위입상자는 93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진출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선수들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93년도 국가대표최종선발대회는 이번대회 1, 2위자, 전년도 국가대표 1, 2위자, 93년도 1차 선발대회 1, 2위 및 2차선발대

회 1, 2위 총 8명이 참가한 가운데 93년도 3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제경선수(국군체육부대)는 결승전에서 심재섭을 맞아 1회 원발 돌려차기, 3회 주먹으로 몸통 적중시키며 2:0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제경은 올해 제25회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는 세계 최강의 선수로 올해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여자부는 페더급 결승전에서 대한체육과학대학의 권혁실선수를 맞아 오른발 돌려차기를 주특기로한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5:0 판정승을 거둔 이승민(경희대)이 차지했다.

이선수는 91년도 국가대표로 제3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한편 지도자상은 남자부에서 한체대의 문원재코치가, 여자부에서는 대한체육과학대학의 권혁중코치가 받았다.



민과 군이 함께 뚝 전국규모 태권도 대회

제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92.11.3~7, 상무체육관)

제1회 국방부 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상무체육관에서 총 34개 단체 270명(남자 일반부 8개팀 65명, 남자대학부 10개팀 103명, 여자부 3개팀 44명, 군선수단 7개팀 56명)의 국내 정상급 선수 및 군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종전의 일반대회와는 달리 일반선수들과 함께 각군의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는 군인들이 대거 출전하게 됨으로써 민, 군 화합의 마당으로 칭찬된 대회이다.

특히 군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국군 상병들의 양성교육과 성 및 군 복무기간동안 태권도 기술보급과 장병 심신단련을 위해 필수 교육과목으로 편성, 교육 및 승단신사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28만 5천여명의 유단자와 태권도 심판 자격자 89명(국제심판 42명, 국내심판 47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도 민, 군이 동참하는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로 태권도 인구의 지반확대와 호황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그 목적이 두고 개최되었다. 경기운영은 남자 일반, 남자 대학, 여자, 군선수단 등 4개부로 나누어 각부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단체전은 군선수단을 제외한 일반인 부문에 각부별 개인전 결투를 종합하여 시상하였다.

각 부별 체급별 임상사에게는 상금 및 메달이 수여되었고 우수지도자에게도 상금 및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우수선수와 우수단체에는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단체심적)

▲여사부: 우승 상병여대, 2위 성신여대, 3위 한체대

▲남자 대학부: 우승 한체대, 2위 동아대, 3위 강원대

▲남자 일반부: 우승 상무, 2위 세육선교신학교, 3위 보령군성(우수지도자상)

▲여자부: 김준태(성명여대교수) ▲남자대학부: 윤원세(한세대교수) ▲남자 일반부: 황영갑(상무감독) ▲군선수단: 허송(1군감독·대령)

순천교도소·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경비교도대 부별우승

제 27 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92.10.28, 법무연수원 연무관)

법무부는 '92년 10월 28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에서 이정우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박종철 법무연수원장, 유순석 교정국장 등 법무부 고위 인사와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및 교정직원, 전국 교도소 무도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도관 무도대회에는 전국 35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를 비롯한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총 78개팀, 399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유단자와 단외자로 구

분하여 각 기관대항 단체전으로 치루어 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정우 법무부장관은 대회를 통해 "교도관 무도대회는 재소자의 계도와 교정시설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이 평소 격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연마한 무술기량을 겨루어 봄으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전 교도관의 단결된 힘과 자신감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간 직무상의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틈틈히 땀흘려 갈고 닦은 무술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선전해 줄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이날 태권도 시합에서 유단자는 우승 순천교도소, 준우승 서울구치소가, 단외자는 우승 서울구치소, 준우승 부산구치소가 차지하였으며, 경비교도대 경기는 우승 안양교도소 경비 교도대, 준우승 대구교도소 경비교도대가 차지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장배가 수여된 장려상은 대전교도소 유단자팀이 선정되었다.



전국도장을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 협회, 한국PC통신(주)와 협약체결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지부와 등록도장간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행정편의를 위해 컴퓨터통신망을 보급키로 하고 한국PC통신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개인·기업·단체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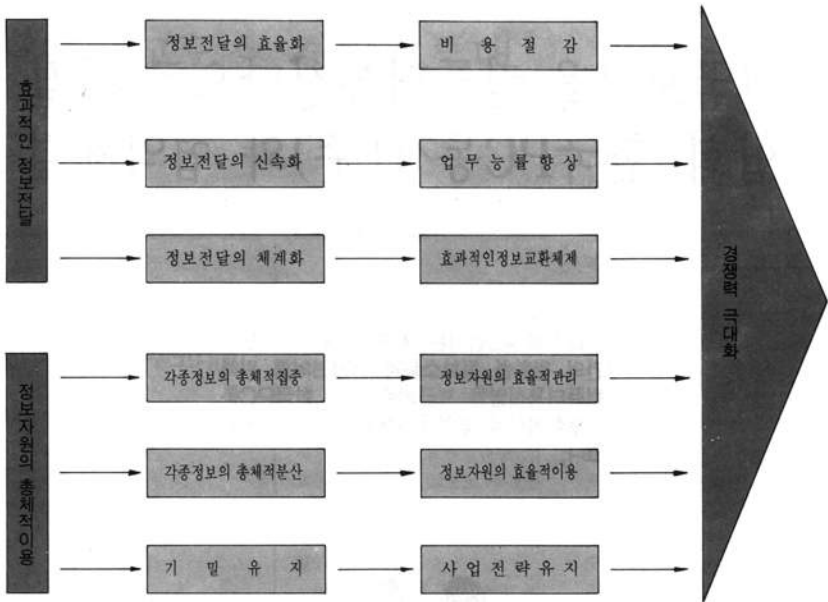
따라서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태권도계가 다른 사설교육기관들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 자체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체계의 도입은 불

가결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중앙협회와 시도지부, 그리고 등록도장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교환을 위해 93년 6월말까지 전국의 도장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7월부터 2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9월부터 정식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93년 6월까지 전국의 도장에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정보망이 구성될 경우, 각 도장은 중앙 및 시

온라인 정보망 구축시 효과



도지부로 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정보를 직접, 동시에 받아봄으로써 향후 전체 태권도 운영체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각 도장간에 경영과 관리 등 각자가 갖고 있는 도장운영에 관한 제정보를 횡적으로 연계 교환함으로써 태권도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도장운영자를 비롯해 수련자들도 단말기를 통해 태권도계 정보외에 「하이텔」에서 제공하는 300여종의 일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일상생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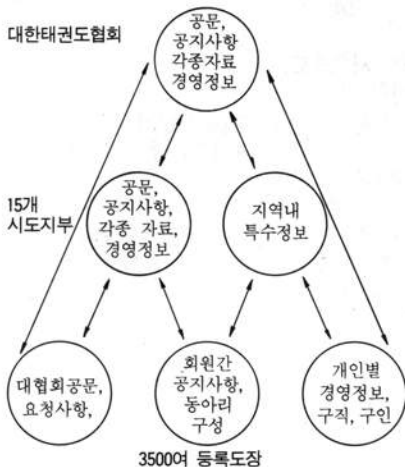
따라서 태권도계의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각 도장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통신의 기능

컴퓨터통신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1. 통신서비스: 원거리에 떨어진 사용자간에 우편, 팩시밀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료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사서함, 전자게시판, 전자회의, 화일전송, 대화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2. 정보검색서비스: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태권도계내 정보, 문화정보, 부동산정보, 증권정보 등)
3. 거래처서비스: 집안에 앉아서 쇼핑, 주문, 배달, 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태권도계 온라인 정보망 체계



설치배경 및 방법

현재 국내의 정보통신망 확산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국통신공사」를 통하여 「Hitel 단말기」(정보검색 전용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바, 협회는 한국통신공사의 자(子)회사인 「한국 PC통신(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3천5백여 도장에 우선 배정받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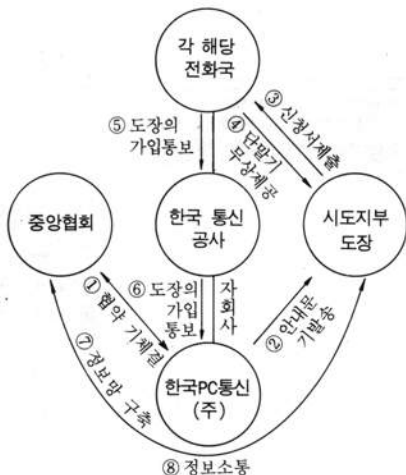
단, 92년 12월 현재 전국의 88개 주요전화국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이 연결되므로 해당 전화국에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정보

1. 태권도내 정보

- 전자우편 :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협회간, 협회와 도장간, 도장상호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정보전달에 필요한 비용, 시간, 인원을 절감한다(공문서 등 문서 수발, 비밀보장이 가능)
- 게시판 : 협회, 도장 상호간 공지사항, 알림, 구직, 구인, 개인의 독특한 경영정보,

설치방법



기타 태권도에 유익한 정보와 개인의건조사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체계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있다.

- 자료실 : 협회 전 회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협회와 시도지부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다.
- 전자회의 : 협회의 독자적인 통신망내에서 협회, 지부, 회원 상호간의 긴급한 회의개최가 가능하다.

2. 일반정보

뉴스속보, 바둑, 기업정보 등 300여 가지의 일반정보를 한국PC통신(주)가 제공하는 Hitel정보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부대비용

구분	요금	비고
단말기인도금	무료(32만원상당)	무상임대
정보사용료	월 9,900원	사용량에 관계없음
사용전화요금	3분당 20원	월(月) 전화요금에 포함, 고지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중국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체육총회의 초청으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태권도시범단은 홍종수 협회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임원 4명, 선수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시범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시범단은 연변 자치족 자치구 연길시에서의 시범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북방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태권도 시범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본격적인 체육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시범은 특히 한민족 동포사회에 한국 체육문화인 태권도의 인식

를 고양시켰음은 물론 중국내에 태권도의 보급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시범단 명단)

- ▲ 단장: 홍종수(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 감독: 노우종(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 ▲ 주무: 박도경(체육청소년부 사무관)
- ▲ 코치: 이규형(국기원 시범단 단장)
- ▲ 선수: 이준우(국기원 시범단 단원), 남승현(대한체육과학대학 직원), 조병삼(경희대 태권도학과), 오영화(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김성진, 권택용(한체대 경기지도학과)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 선수식서 조영기 감사 등 26 명 훈포장 수상

체육청소년부가 주관하는 국





▲ 훈포장을 수상한 태권도 유공자들

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조영기감사 등 26명의 태권도인들이 훈포장을 받았다.

12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피아홀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에는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비롯한 김중렬 대한체육회장, 가맹경기단체회장 등 체육관련인사 및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태권도인사로는 91년 5월 그 리이스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



'93전국 체전, 여자부 시범종목으로 채택

여자태권도인들의 숙원이었던 전국체전 종목 채택이 이루어졌다.

대한체육회는 구랍 1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74회 전국체육대회(광주) 태권도 여자부 8체급경기를 시범종목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태권도협회가 '87년 이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여자태권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결과 4년여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

'93체전 8체급(만 15세이상) 시범종목 채택에 따라 '94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자부경기는 시도지부의 집중투자와



육성이 예상되어 여자태권도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 소식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및 90년 6월 중화대륙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으로 참가해 종합우승으로 이끈 임원 및 입상자들이 훈포장의 영광을 안았다.

훈격별로는 거상장 5명, 백마장 5명, 기린장 7명, 체육포장 8명, 대통령 표창 1명 등 총 26명이다.

(수상자 명단)

▲체육포장

조영기(제9회 아시아선수권 단장, 협회 감사 및 전남협회 부회장), 김현수(제9회 아시아선수권 남자부감독: 전남협회 경기이사), 장용규(제9회 아시아선수권 남자부코치, 경남체육고 코치), 이택명(제9회 아시아선수권 여자부감독, 기획문화위원장), 송동식(제9회 아시아선수권 여자부 코치, 천안여고 코치), 김현철(제9회 아시아선수권 남자부 페더급 2위), 박진경(제9회 아시아선수권 여자부 페더급 1위), 남정동(제9회 아시아선수권 여자부 라이트급 2위)

▲백마장

이건수(제10회 세계선수권 단장, 전북협회장), 김대연(제10회 세계선수권 감독, 경기문화위원장), 윤광옥(제10회 세계선수권 코치, 한성고 코치), 이근우(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감독, 부산협회전무이사), 이흥규(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코치, 부산남여자상 코치)

▲거상장

윤순철(제10회 세계선수권미들급 1위), 박동선(제3회 여자세계선수권 밴텀급 1위), 정은옥(제3회 여자세계선수권 라이트급 1위), 양인택(제3회 여자세계선수권 미들급 1위), 박용웅(제10회 세계선수권 웰터급 1위)

▲기린장

권혁선(제9회 아시아선수권 남자부 플라이급 1위), 김성진(제9회 아시아선수권 남자부 밴텀급 1위), 이승민(제9회 아시아선수권 여자부 밴텀급 1위), 강철우(제10회 세계선수권 핀급 3위), 선상준(제10회 세계선수권 밴텀급 3위), 김진성(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핀급 3위), 조항미(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웰터급 3위)

▲대통령 표창

모선영(제9회 아시아선수권 밴텀급 1위)

92년도 제4차 고단자(6,7,8단) 심사대회 실시

12월 5일 국가원에서 실시한 고단자 심사대회에는 총 78명이 응시했다.

단별로는 6단에 54명, 7단에 16명, 8단에 8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93년 1월에 발표된다.

경희대, 대한체육과학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3급 심판교육 실시

경희대와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에서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한 태권도 3급 심판교육을 실시하였다.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경희대 체육교육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총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규칙 및 바람직한 심판상에 대한 이론강의는 강원식 전 무이사가, 실기강의는 기술심의 회 심판분과위원회가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협회

'93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업운규 회장 재선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93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92년 말로 현행행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한 체육회 운영 지침에 의거, 조기에 총회를 개최하여 '92년 사업보고 및 결산, '93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임원 선출에 대한 부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였다.

새해 사업계획은 승품 심사대회 3회, 승단 심사대회 6회, 고단자 심사 대회 4회, 경기대회 4회로 확정하였고, '93년도 새해 예산은 5억3천여만원원을 원안대로 승인, 확정하였다.

임원 선출은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 일치 결의에 의해 전임



▲ 장학금을 수여하는 업운규회장

업운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제 11 회 서울 시장기 대회 개최

열한번째 맞이한 서울 시장기 초·중·고·대학·일반 단체 대항 및 개인 선수권 대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 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초·중·고·대·일반부 선수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 결과 국교부 광희국교, 중등부 용곡중학교, 고등부 리라공고, 대학부일반 서울지하철 공사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각 부별 우수 선수 2명씩 총 10명에게는 3백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명단)

▲국교부:유광희(광희국) 한전민(은천국)

▲중등부:이상권(용곡중) 민병석(단대부중)

▲고등부:강한구(리라공고) 이용국(송곡중)

▲대학부:김정오(경원대) 김태수(경원대)

▲일반부:방영인, 김득영(지하철공사)

'92년 심사 대회 종료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10월부터 12월 까지 승품·단 심사대회를 7회 실시 하고 12월 13일 제 387회 승품 심사 대회를 끝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예년에 비해 승품심사 참가인원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고 승단 심사인원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평소 일선 체육관 사범들의 성실하고 알찬 도장 운영 결과였다고 본다. 대회별 참가

태권도 소식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승품심사

10월11일: 1품 1,150 2품 375 3

품 87 계 1,612

10월25일: 1품 1,622 2품 604 3

품 147 계 2,373

11월8일: 1품 1,141 2품 431 3품

96 계 1,668

11월22일: 1품 1,635 2품 706 3

품 161 계 2,502

12월13일: 1품 2,465 2품 1,000

3품 300 계 3,765

▲ 승단심사

10월18일: 1단 549 2단 225 3단

145 계 919

12월6일: 1단 1,491 2단 504 3단

165 계 2,160

▲ 고단자심사

11월7일: 4단 102 5단 25 계

127

서울 - 모스크바 친선대회 개최

제1회 서울 - 모스크바 태권도 친선 대회가 지난 11월 5일

과 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 되었다.

서울시는 임원 약간명과 선수 8명(서울 지하철 공사 팀)을 파견, 친선대회를 통해 모스크바에 태권도를 홍보하고 태권도 발전에 기여했다.

양협회는 태권도 발전은 물론 전통 태권도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류 협정서를 작성, 태권도 기술을 상호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선수 및 임원을 파견하여 태권도를 국제적 스포츠로 발전시키는데 상호 기여하기로 하였다.

〈서울 박노규·김중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93 정기대의원 총회서 김차진부회장 신임회장으로 선출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부산호텔 회의실



▶ 모스크바 친선대회에 참가한 서울시 대표팀



에서 '93년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각지역구에서 선출된 12명의 대의원과 학교군, 중앙 대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총회에 앞서 최용수 회장은 '92년도 부산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이어 92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3년도부터 4년간 부산태권도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선출에서 회장에 현 김차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현 이근우 전무이사를 유임케하였으며 감사 2명도 함께 선출하였다.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92년도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11월 15일 구덕체육관에서 2천8백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심사에 앞서 협회장을 대신하여 이근우 전무이사의 대회가 있었으며 부산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우수선수들에게 격려금이 전달되었으며 우수도장에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도장장

박 용 운 (팔송체육관)
최 상 문 (반석체육관)
김 지 용 (연일체육관)
서 정 우 (한미종합체육관)
김 영 규 (수도체육관)

▲우수선수상

옥순재 (수성국교)
소용석 (명륜국교)
박창건 (개성중학교)
이임수 (개금고교)
강동국 (동아대학교)
정일권 (반송체육관)

▲지도자상

손 동 국 (재송중학교)
▲모범위원장
이영기 (창무체육관)
박가서 (충렬체육관)
고영범 (조양체육관)

▲공로상

이승재 (분회 이사)
이삼조 (심사분과위원장)
윤성노 (도장관리분과위원장)
홍순호 (심판분과부위원장)
문윤식 (경기분과위원)
김상진 (기획분과위원)
최용옥 (심판원)
정도정 (심판원)

지회 임원 선출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규약 제18조 2항에 의거 집행부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를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중 구: 문윤식(중앙체)

동 구: 이인재(우양체)

영도구: 한덕현(동삼체)

서 구: 신동점(서부체)

사하고: 최천수(감삼체)

남 구: 홍순호(대호체)

북 구: 윤성노(구포체)

강서구: 안운용(명지체)

부산진구: 이경구(수양체)

동래구: 정정우(현대체)

금정구: 조석호(세종체)

해운대구: 박동식(대웅체)

학교군: 박창용(동명공전)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 전국체전 종합 2위를 차지한 대구협회

대구직할시협회

전국체전 종합 2위

대구태권도협회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라이트급 김진 금메달, 미들급 박정태 은메달, 헤비급 이명하 동메달, 대학부(계명대) 플라이급 여원재, 웰터급 손원기 은메달, 라이트급 강재구, 핀급 김건일 동메달, 일반부(금복주) 헤비급 강철규 은메달, 미들급 공한석, 페더급 임성욱(시험회)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전국체전 종합2위를 차지하였다.

경상공고 3연패

11월 19일 대구체육관에서 개최된 '92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겸 대구직할시장기대회에서 대구 경상공고가 3연패를 달성하였다.

지부체육대회

대구협회는 11월 15일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 산하 7개지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벌어진 축구, 배구, 달리기대회에서 200여명의 체육관장들은 친목과 단결된 면모를 보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종합우승은 북대구, 2위 남대구, 3위 달서구, 감투상은 동대구가 각각 차지했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제1회 모스크바 국제태권도 대회 충남대종합우승

충남대선수단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이 제1회 모스크바 국제 태권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선수단(단장 한용석, 대전시협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

터 27일까지 모스크바의 드르즈바 국제스포츠홀에서 열린 8체급 경기에서 금6, 동1개를 따내 금1, 은2개로 준우승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을 가볍게 제치고 종합우승의 명예를 차지 했다.

미국·캐나다·불가리아·필랜드 등 10개국 남·여선수 181명이 참가한 이번대회는 러시아 태권도 협회와 모스크바 태권도 협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 승인하에 개최되었는데 처음의 대회였지만 어느 국제대회에 손색없는 훌륭한 대회였다.

국제심판으로 참가 하여 개정된 심판규정을 러시아 연방 태권도 사범들에게 지도한 오노균, 김상호씨는 대회전날까지 계속된 세미나에서 심판 이론 및 실기를 지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태권도 현황에 대한 질문 공세가 계속 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태권도의 진수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러시아 군악대의 광파르에 맞추어 9월 25일 시작된 제1회 모스크바 국제 태권도대회는 국제스포츠홀을 꽉 메운 관중들의 환성으로 열기를 더했으며 러시아 중앙 T.V에서는 전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 한용석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이제 국제무대에서 세계인이 즐기는 무도 스포츠로 발전 하였으며



▲ 모스크바 국제대회에 참가한 충남대 선수단

이제 전태권도인의 단결로 올림픽 정식 종목을 맞을때"라고 역설하고 "이제 원년으로 시작되는 모스크바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태권도 협회 수석 부회장 최명철, 모스크바 태권도 협회장 비탈리 박씨, 삼성전자주식회사 모스크바 지점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 총재의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대전태권도협회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이후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와 자매결연으로 4회의 국제교류 대회를 갖은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러시아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제1회 러시아 독립기념 태권도 대회와 이란 국

제태권도대회에 대전팀을 파견, 우승하는 등 태권도를 통해 국위를 선양해왔다.

(대표팀 명단)

- ▲ 단장: 한용석(대전시협회장)
- ▲ 부단장: 이용부(대전시협회 부회장)
- ▲ 감독: 홍성표(충남대학교 교수), 이진수(대전시협회 전무이사)
- ▲ 국제심판: 오노균(한남대학교 사회체육과교수), 김상호(충남협회 경기이사)
- ▲ 코치: 장태윤(충남대학교)
- ▲ 선수: 정주철, 민경필, 손효봉, 윤희준, 민경승, 황일선, 안성주, 구기정(이상8명)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경기도협회

황광철회장 취임

경기도 태권도협회(회장: 12월 2일 협회사무실에서 황광철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명과 대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실시했다.

'92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승인되었고 '92년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임원선출에서는 황광철회장이 유임되었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장: 황광철(유임)
- ▲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안종용(유임)
- ▲ 부회장: 박기원, 조웅준(유임), 문익근(신임)
- ▲ 이사: 최학수, 김형호, 서경기, 임기섭, 유종범, 강명희, 채만춘(이상유임), 김경덕(신임)
- ▲ 감사: 김철화, 문현호(이상신임)

충청북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종윤회장 재추대

'92년 12월 2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2년 사업결산 및 '9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회장선출에 있어 지금까지 4, 5차례 계속 이끌어 온 전종윤회장을 제6대회장으로 참석자 전원 민선임지에 의해 재 추대기로 결의되어 앞으로 4년간 임기를 맡게 됐다.

이사회 개최, 이사 전원 유임

'92년 11월 28일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 이사회가 협회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현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전체 이사가 신임이사로 재 추생되었다.

충북협회 이사들은 모두가 우수한 태권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태권도에 대한 의견과 충분한 이해를 갖고있어 물질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기타 협회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인의 정변화대와 우수선수를 많이 길러내어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단양군 태권도협회 이동일이사와 봉명중학교 이기영 지도교사에 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제18회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개최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청주선홍고등학교강당에서 제18회 충청북도 교육감기 태권

도대회가 도내 초·중·고선수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별 단체성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부

우승: 청주서원국교, 2위: 제천동명국교, 3위: 충주성남국교, 장려: 청주남성국민학교, 지도상: 서원국교김중운사범

▲중학교부

우승: 청주중, 2위: 제천동중, 3위: 청주남중, 지도상: 청주중 이규철교사

▲고등학교부

우승: 청주신흥고, 2위: 충북체고, 3위: 청주시계공고, 장려: 청원부강공고, 지도상: 김

상문사범

'92 충북 태권도인의 밤' 성대히 개최

한해를 마무리하고 태권도인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92년도 태권도인의 밤"행사가 11월 21일 저녁에 후생사 빌딩 영부페에서 300여명의 태권도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자리에서 전중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태권도발전에 노력해 주신 태권도인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태권도인과 가족들

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전중운회장은 그동안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매년 실시해오던 '태권도인의 밤'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였다.

(장학생 명단)

양원철(청주대), 김동민(충북체육고), 유인평(청주중), 구지형(청주중), 김형호(청주중), 김향수(청주중), 김형구(청주중), 박정래(청주중)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지용범, 용석 형제 나란히 태권도 체육관 개관”

지난 85년부터 충북태권도 협회 전임지도사범 및 도체육회 순회코치로 수년간 활약하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선수육성에 크게 공헌한바 있는 지용범군이 지난 11월 28일 청주시 수곡동에 「지용범 태권도 체육관」을 개관하였다.

지용범사범(32)은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지용석(28)의 형으로서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3번의 우승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9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때에는 국가대표코치로 발탁돼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 있다.

동생 용석군 역시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발차기 명수로 88서울올림픽때에는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페더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으며, 그후 청주중학교 태권도코치로 활약해 오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율령동에 「지용석태권도체육관」을 개관한 바 있다.

이로써 용범, 용석 두형제가 나란히 체육관을 개관하여 더욱 본격적인 태권도 후진양성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우리 충북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게 기여하



리라 기대하고 있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충청남도협회

이종승회장 10대회장으로 재추대

충남태권도협회에서는 '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92년 12월 1일 세원부페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전차회의록을 승인하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전심의를 들어갔다.

199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건과 19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임원선출에서는 제9대 이종승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임원명단)

- ▲ 회장: 이종승(풍천광업소 대표)
- ▲ 부회장: 한문복(백제회관 대표), 오세준(오약국 대표), 이강노((주)신영건설 대표), 최익환((주)청일건설)



이종승회장

- ▲ 부회장겸전문이사: 양준목(무술체육관장)
- ▲ 총무이사: 전병덕(대성체육관장)
- ▲ 감사: 장광진(광진체육관장) 채경일(인화체육관장)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제73회 전국체전서 중위권 진입

충남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및 5년만에 부활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



국규모대회와 제3회 교육감기 대회를 시작으로 제10회 도지사 기시·군대향태권도대회까지 7회의 대회를 실시하였다.

대회를 통하여 전년보다 전력증강 및 체력향상 등 경기력에서 많이 향상되어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중위권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는 우수선수들을 조기발굴하여 치밀한 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훈련과 강화합동훈련을 통하여 선수와 임원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라고 본다.



▲충남도지사기 시상식

소년체전서 광영진(천안북중)금메달획득

5년만에 부활된 제21회 소년체육대회에서 천안북중의 광영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충남 중등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10회 도지사기 시·군대향태권도대회 개최

올해는 서천군태권도협회에서 대회를 유치하여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전 3일에 들어갔다.

대회를 주관한 서천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2위는 부여군, 3위는 서산군협회가 차지하였다.

(단체성적)

- ▲국교부: 1위 서천군 2위 서산시 3위 서산군
- ▲중등부: 1위 예산군 2위 천안시 3위 서천군
- ▲고등부: 1위 태안군 2위 서천

- 군 3위 당진군
- ▲대학부: 1위 논산군 2위 서천군
- ▲일반부: 1위 보령군 2위 서천군 3위 부여군
- ▲여자부: 1위 금산군 2위 천안군 3위 부여군

(김계체육회장), 양병구 김제군수, 이내연 김제경찰서장, 오해걸 김제시군 교육장, 이근식 김제시군 민주자유당위원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시작되어 3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부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협회

제29회 협회장기 개인, 단체선수권 대회 개최

전라북도협회주최, 김제시군태권도협회 주관으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제국민학교 강당에서 제29회 협회장기 개인, 단체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이근수회장을 비롯해 장한철, 정금수 부회장, 이명철 김제시군협회장, 이종하 이리시협회장, 신동의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유봉영 김제시장

▲국교부: 강정우(평화국교) 송성택(군산동국교) 김성중(군산남국교) 최요한(군산국교) 장기성(성송국교) 한철희(합열국교) 임두일(군산동국교) 정성철(성송국교) 박기정(군산국교) 서정주(남창국교) 서현철(군산동국교)

▲중등부(남자): 김대현(고창남중) 김진호(중앙중) 김관수(영선중) 김명수(합열중) 국춘근(완산중) 박두섭(배영중) 오영성(합열중) 황길재(고창남중) 김종호(완산중) 신성길(고창남중) 김태훈(산외중)

태권도 소식



▲전북협회장기대회에서 국교부 우승을 차지한 군산 동국민학교

▲중등부(여자) : 이미형(용지중) 김이레(감곡중) 이은주(군산여중) 양인자(고창여중) 박수희(기린여중) 유춘화(홍덕중) 김현주(홍덕중) 김수현(홍덕중) 기미선(고창여중) 유희정(기린여중) 김매선(기린여중)

▲남고부 : 홍호삼(전북체고) 이병석(만경고) 박오섭(전북체고) 이상훈(함열고) 김기석(전북체고) 이남규(전북체고) 최호경(전북체고) 김정완(함열고)

▲여고부 : 박은경(김제상고) 박경선(김제상고) 안근아(김제여고) 양춘희(김제북고) 황정은(고창여고) 조의영(김제상고) 정미화(김제북고) 박정숙(김제북고)

▲일반부 : 선승희 서명수 유충렬 김대신(이상 김제체) 박정렬 김대원(산업대) 원성덕(청룡체) 김대영(삼일체)
(단체성적)

▲국교부 : 1위 군산동국교 2위

성송국교 3위 군산남국교

▲중등부(남) : 1위 고창남중 2위 완산중 3위 함열중

▲중등부(여) : 1위 기린여중 2위 홍덕중 3위 용지중

▲고등부(남) : 1위 전북체고 2위 함열고 3위 만경고

▲고등부(여) : 1위 김제북고 2위 김제상고 3위 고창여고

▲일반부 : 1위 김제체육관 2위 군산산업대 3위 부안도장.

시군 태권도협회 지도자 축구대회

전북협회는 이리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11월 22일 이리시공설 운동장에서 시군태권도협회 지도자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종하 이리시 태권도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기회를 통해 태권도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6개팀이 출전한 축구대회에서 전주문화체육관의 서성영관장이 득점왕, 전주동아체육관의 강동화관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축구대회 우승은 전주시태권도협회, 2위는 군산시 3위는 익산군협회가 차지했다.

(전북 이윤업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제9회 회장기 초·중학교 태권도 대회 개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단체 17개팀 개인 11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9회 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어 이천서국교와 여수중이 부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각 부별 우승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부(11체급): 김남형, 한해진, 임성우, 유정우, 김성영, 문진혁, 김형규, 박형남, 소병훈, 김유호, 이상규

▲중등부(11체급): 임수환, 허종근, 박유천, 양상호, 이후현, 사기훈, 김형택, 김영백, 박형근, 이규람, 임태윤

제13회 도지사기 시·군 대항 대회 개최

10월 24일 부터 25일까지 전남 태권도 훈련장에서 단체 10

팀이 참가한 가운데 도지사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치열한 접전끝에 종합우승은 영광군, 2위 목포시, 3위 광양군이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는 유창호(영광군), 마천국(광양군), 고채득(광양군), 추경철(목포시), 김은철(여수시) 고용수(보성군), 빙원철(여수시) 박은석(동광양시)가 차지했다.

11월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721명 승단

전남 협회에서는 전남 태권도 훈련장 및 유달경기장에서 11월 승품단 심사 대회를 개최하고 총 721 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 1품 286명, 2품 77명 3품 14명, 1단 175명, 2단 100명 3단 48명, 4단 13명 5단 8명 이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92년도 경북 남·여 최우수 선수 선발대회 개최

한해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들만 출전해 최우수 선수를 가리는 92년도 경북 남·여 최우수 선수 선발대회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동안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126명

중등부 129명 일반부 103명(고등부, 대학부 통합) 여자부 12명 등 총 370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최우수선수상

초등부: 송 한 범(양정국)
중등부: 임 호 진(영천중)
일반부: 강 상 회(경북체고)
여자부: 김 희 영(경북체고)

제11회 포항시 태권도 협회 정기 대회 개최

제11회 포항시 태권도 협회 정기 대회가 초등부 105명 중등부 32명 등 총 137명이 출전한 가운데 거행 되었다.

경북지방 대회로서는 가장먼저 대회를 유치한 포항시의 격려가 돋보이는 대회였다.

특히 시범대회에 참가한 중부체육관 유아부의 시범은 이날 대회의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박수 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이날 이부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본 대회를 통해 지방체육발전과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조성에 이바지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이회장은 포항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차동해 포항제철 감사에게 감사패를 강재근 포항시 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에게 공호패를 수여 하였다.

부별단체 성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태권도 소식

우 승: 제철체육관
 준우승: 청림체육관
 감투상: 백호체육관
 미기상: 동부체육관

▲중등부

우 승: 정림체육관
 준우승: 정동체육관
 감투상: 중부체육관

▲최우수선수상

초등부: 서화준(제철체육관)
 중등부: 이상현(정림체육관)

▲지도상

초등부: 장현식(제철체육관)
 중등부: 조현진(정림체육관)

3위 대호체육관
 장려상 대송체육관
 감투상 경동체육관

▲중등부 경기대회

1위 흥해중학교
 2위 영일체육관
 3위 무림체육관
 장려상 구룡포체육관
 감투상 동해체육관

▲최우수 선수상

초등부: 김영환(영일체육관)
 중등부: 이상대(흥해중학교)

▲지도상

초등부: 이성우(영일체육관)
 중등부: 구자우(흥해중학교)

제2회 영일군 태권도 협회 정기 대회 개최

제2회 영일군 태권도 협회정기 대회가 경기부와 연무시범으로 나누어져 11월 8일 포함 대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부에는 초등부 72명 중등부 40명이 참가 했고 연무시범에는 고등부 24명 등 총 136명이 참가했다.

이날 박태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으로 태권도를 가장 인기있는 종목으로 성장시키자"고 당부했다. 출전한 각 팀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연무 시범 대회

1위 구룡포체육관
 2위 경동체육관
 3위 정무체육관

▲초등부 경기대회

1위 영일체육관
 2위 무림체육관

청송군 태권도 협회 발족

청송군 태권도 일선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3일 밝기 총회를 갖고 청송군 지부를 구성 했다.

이날 일선지도자 6명은 각 지역별로 태권도협회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사 2-3명씩을 영입해 17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칙 통과와 임원선출을 하여 청송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경북태권도협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한편 초대회장에 선출된 한성기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금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다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송 지역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청송군 협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성기(진보체육관장)

▲부회장: 신철만(상업), 이동준

(상업), 심용양(부남체육관장)

▲부회장 겸 전무이사: 심용양
(부남체육관장)

▲총무이사: 최홍순(청송체육관장)

▲경기이사: 한주석(진보체육관사범)

▲심판이사: 김진섭(우일체육관장)

▲심사이사: 최병걸(현서체육관사범)

▲이사: 심홍택(국제농자재사 대표), 조재현(농업), 서삼윤(농업), 윤주희(청송 2보호감호), 권상진(-), 조래근(농업)

▲감사: 김영찬(현동면 사무소) 이선희(현서 보건소)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제31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경남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돈독히 하고 경남체육의 지속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31회경남도민체육대회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에서 각종목별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경남의 29개 시·군을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성적 등을 토대로 1부와 2부로 나눈 가운데,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울산공설운동장과 각 보조경기장에서 열전을 치렀다.

태권도 경기는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체육관(새마을회관)에서 1, 2부의 421명의

선수들이 고등부와 일반부로 출전하여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과시하였다.

특히 의령군(2부)의 전 근 선수는 4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부 레비급으로 출전,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많은 관중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이번 도민체전의 태권도 경기장은 재울산 향우들이 많이 찾아와 고향의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등 인정많은 경남인의 혼융함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모두 끝난후 이순달 경남협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년 제31회 도민체전은 심판판정에 대한 불복이나 경기장에서의 난동 등 태권도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남 태권도인의 성숙된 자세를 치하하였다.

종합성적을 보면 1부에서는 1위 울산시, 2위 진주시, 3위 창원시가, 2부에서는 1위 삼천포시, 2위 창원군, 3위는 사천군으로 각각 돌아갔다.

부별 체급별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1부)

▲고등부: 정지운 김희영(충무시) 이경용(진주시) 김성우(창원시) 차주환(마산시) 승진식(진해시) 박은출(양산군) 김철환(울산시)

▲일반부: 이만식 이승욱 이종학 조광천 김동욱(울산시) 이임수(양산군) 박철현(창원시) 염덕주(거창군)

(2부)

▲고등부: 안경호 추헌필(창원군) 유홍윤(삼천포시) 허길용(함양군) 백인섭(의령군) 김신영(창원군) 김대성(사천군) 정정준(밀양시)

▲일반부: 왕무상(김해군) 지재기(통영군) 박병욱 김현일 김외준 이정기 최경주(이상 삼천포시) 신용욱(밀양시)

제8회 경상남도 어린이 태권왕 및 제4회 여자부 대회 겸 제22회 전국소년체전 1차 평가대회

국회황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남협회와 KBS창원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KBS창원방송총국의 다목적홀에서 학부형과 어린이들의 환호속에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순달 경남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대회는 내일의 태권도 기둥이 될 꿈나무를 위한 잔치요, 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행사이므로 먼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예의와 태권도의 정신을 기술지도와 병행해서 수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명예 대회장인 KBS창원방송총국 경상전 총국장은 치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꾸고 불의에 대한 불퇴전의 용기를 북돋우는 태권도를 연마하여 훌륭한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서 더욱 부강한

태권도 소식

나라를 가꾸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국교부 216명, 중등부 105명, 여자부(중·고·일반) 159명 등 총 38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이중 중등부 11체급의 우승자는 내년 제22회 전국소년체전의 1차평가 경남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전국소년체전의 최종 대표선수는 앞으로 다섯명의 평가전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비록 어린이태권왕 타이틀은 놓쳤지만 국민학교부 핀급 결승전에서 봉림국민학교 3학년 김익중선수(장원 정릉체육관소속)는 키130cm 몸무게28kg의 작은 신체적 조건으로도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구사하여 관중의 열렬한 박수와 갈채를 헌품에 받았다.

부별 체급별 우승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부: 김남진(태화국) 이창진(신양국) 김주엽(우정국) 전상범(합성국) 박동수(우정국) 김종훈(현동국) 장윤기(용호국) 이윤병(내동국) 안재혁(완월국) 인제형(양곡국) 안수희(산호국)

▲ 중등부: 최우준 강원범 김중삼(이상 구암중) 차지철 박선규(이상 현열중) 박만준 송정일 천희라 서주환(이상 방어진중) 최영두(장안중) 송영준(장목중)

▲ 여자부: 박은옥(거창여고) 정미향(설천중) 박지영(거창중고) 옥성임(거창여중) 최명숙

(유호도장) 송재숙(진해중고) 변연화(양산여중고) 김말선(삼진중)

정기대의원총회개최, 이순달 회장 재선

1992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을 결산하며 1993년을 준비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1992년 12월5일 마산시 회원구청 상강실에서 열렸다.

전체 대의원36명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년보다 한 두달 빨리 개최된 이번 대의원총회는 총무이사의 사회로 개회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회장인사, 전차회의록송인,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안건심의에서는 '9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그리고 올해로 4년 임기가 끝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새로운 선출이 이어졌다.

표창패와 감사패는 이종호 이사의 19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되었다.

감사보고에서 김학수 감사는 주로 협회의 행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보고를, 전상대 감사는 재정회계 및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상정된 '9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안건은 대의원들의 많은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새해예산안 1억6천8백만원울 원안대로 통과, 확

정했다.

참석대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경남협회전문위원회 의장이면서 하동군 대의원인 진귀윤관장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새집행부 선출에 들어갔다. 장유규 중앙대의원의 동의와 그밖에 많은 대의원의 재청과 재재청 등으로 이순달 전임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출되었다. 부회장 및 다른 임원의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정철 삼천포시 대의원과 김광년 중앙대의원이 뽑혔다.

제 추대된 이순달 신임회장은 회장직을 수락하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저는 새 임기동안 다음 세가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는 경남 태권도 회관의 건립이고, 둘째는 경남 각 시군지회 활동의 강화와 자율성보장이며, 셋째는 경남협회조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화화와 합의의 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으로 오랫동안, 참석한 각 시군 대의원과 참관자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199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의 폐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109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1992년을 마무리하는 경남태권도 협회의 제109회 공인 승품·단 심사대회가 진주, 울산 그리고 마산에서 연 3주동안 계속

해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사는 응심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기위해 경남협회 심사위원들이 이들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다. 11월 22일은 진주 생활체육관에서, 11월 29일은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또 12월 6일은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응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질서있게 치러졌다.

이번 승품단 심사에는 1품 2371명, 2품 757명, 3품 195명, 1단 537명, 2단 237명, 3단 134명, 4단 37명, 5단 20명 등 총 4288명으로 울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심하였다.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대학연맹

이정길회장 재선 대학연맹 정기 이사총회

대학연맹은 1992년 12월 5일 15시 프리마호텔에서 정기이사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정길 회장의 여러 이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에 이어 감사보고, '92년도 결산승인, '93년도 예산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노회덕 부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대학연맹 이사들은 연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공로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을 보인 현 이정길 회장을 재 추대하자는 동의와 재청속에 만장일치로 이정길 회장을 재추대했다.

신임 이정길회장은 제2회 스페인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감독 및 제3회 멕시코 세계대학 선수권대회에 단장으로 파견되어 양대회 모두 종합우승으로 이끈바 있다.

〈대학 지병윤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재브라질협회

제7대 회장에 김윤식씨 선출

재브라질태권도협회에서는 11월 21일 열린 정기 총회에서 6대 이계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에 김윤식사범(50세, 8단)을 2년 임기의 제7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제6대 회장에 한춘교씨 취임

재미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1월 28일 현지 공관장, 사회단체장, 사회인사, 각가맹경기단체장, 체육계 인사 및 현지 사범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미주 사회 태권도인의 저변확대와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과 우리 민족의 문화창달 및 미주 교포 사회 체육증진에 힘써온 재미대한태권도협회는 제5대 서

영익회장 후임으로 제6대 회장에 한춘교씨가 취임하였다.

국기원

제73기 태권도사범 및 3급 사회(생활)체육지도자 연수교육 실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 지도능력배양 등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한 제73기 태권도 사범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171명의 사범이 배출되었다.

사범지도자 연수교육 38시간, 3급 사회체육지도자 50시간 등 총 88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교양(국사, 국민윤리, 태권도 정신 및 예의규범), 특강(지도자 역할과 사명, 직장 체육대회 모형, 국기원 현황), 체육현황(체육학개론, 운동생리학, 트레이닝 방법론, 스포츠

▶ 국기원 연수원에서 실시된 생활체육지도자교육 개강식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레크리에이션, 체육행정론, 체력측정 및 평가, 구급 및 안전관리), 태권도 이론(태권도사, 겨루기론, 시범방법론)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지난 9월말에 실시된 제 72기 태권도사범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과정에서는 총21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195명이 사범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제16기 2급 경기지도자 연수 실시

국기원 연수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19일간 2급 경기지도자연수를 실시했다.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은 물론 한국체육발전을 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실시된 2급 경기지도자연수과정에는 총 140명이 수료했다.

연수원 수료자들은 국가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체육청소년부장관 발급 2급 경기지도자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체육도장 경영 및 강사자격이 부여된다.

심사규정 일부 개정

국기원은 92년 9월 1일부터 5단이하의 승품단 심사업무 각

국협회에 위임, 그동안 국기원장 명의로 발급하던 품단증을 회원국협회장과 국기원장 공동 명의로 발급함으로써 이에 따른 심사규정을 개정했다.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 총재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회장 재선

김운용 세계연맹총재 겸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 10월 24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 제26차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제4대회장에 재선되었

조 항	현 규 정 내 용	개 정 안 내 용
제5조 (추천권)	<p>1. 응시자에 대한 국기원 승품, 단 심사 추천권은 각 국가협회장에게 있다. 단, 국가협회 추천 여건 조성의 시기도래시까지는 각 국가협회 또는 본원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국기원에 대하여 직접 추천권을 갖는다.</p> <p>2.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서 공인 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수련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확인서에 의거, 지도사범이 추천한다.</p>	<p>1. 응시자에 대한 국기원 승품, 단 심사추천권은 국가협회가 자국내의 회원율 70%이상 장악하고, 원활한 심사업무를 집행한다고 본원에서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협회장은 추천권이 있다. 단, 개별 추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p> <p>2. 승품, 단 심사추천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는 위1항과 같이 여건조성의 시기도래시까지 국기원에 대하여 개별 추천권을 갖는다.</p> <p>3. 현규정 내용 2항과 변동없음.</p>
제16조 (품, 단증발급처리)	본원은 승품, 단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원장 명의 품, 단증을 발행한다.	<p>1. 본원은 승품,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품, 단증을 발행한다.</p> <p>가. 5단 이하는 국기원장과 추천 국가협회장 공동명의로 발행하며, 추천국가협회장 발급명의로는 별도 지정된 위치에 본원에 등록된 협회장 서명후 해당국가에서 발행한다.</p> <p>나. 국가협회 추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는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p> <p>다. 6단 이상 고단자는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p>

태권도 소식

다.

이로써 김운용총재는 1986년도에 회장에 피선된 이래 2년 임기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장에 4회연속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제2회 U.S 오픈 태권도대회 93년 2월에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각국의 태권도 유, 단 품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U.S 오픈 태권도대회를 9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93년도 월드컵 게임 한국 6체급 참가

93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월드컵 게임 태권도 경기에 한국은 남자 4체급, 여자 2체급이 참가하게 된다고 세계연맹이 알려졌다.

월드게임은 현재까지 남자 8체급, 여자 4체급경기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한국이 참가예정을 받은 체급은 *남자:플라이, 페달, 웰터, 헤비 *여자:플라이, 웰터급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 게임은 1981년도에 창설되어 미국 쉐타 콜라라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태권도는 총 16개 종목중 하나로 참가해오면서 3번의 대회에서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삼성컵 태권도 대회 모스크바서 개최

삼성컵 태권도대회가 11월 28일과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시 이스마일르프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지역내 태권도 보급을 위해 91년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이 대회는 러시아 전지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예선을 거쳐 우승한 지역별 대표 99명이 참여, 러시아 태권도 최강자를 가렸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지역내 태권도 보급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 대회를 창설, 대회를 주관하는 러시아 태권도 연맹에 4만달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이대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태권도 사범 출신작가 김건중씨, 태권도 연작소설집 출간

일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작가활동을 해온 김건중씨가 태권도 연작소설집 "바람가르기"를 출간했다.(도서출판 불후문고 발행)

바람가르기에 수록된 연작은 태권도장을 중심으로한 진솔한 이야기로 태권도지에 1987년 가을호(제62호)부터 1990년 여름호(제73호)까지 연재해온 것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 전환으로 질적인 성장 이루어야

송영웅 / 한국일보체육부기자

한 국가나 민족의 정서와 사상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행동양식을 만들어내지만 역으로 자신이 잉태한 그 행동양식에 영향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 민족에 있어 태권도는 국가이전에 한민족의 행동양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을 차지했고 또 그것의 변화에 따라 모양을 달리해왔다.

불의에 굴하지나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예 선조들의 대복같은 선비정신, 곳곳하게 반만년을 내려온 진취적 기상과 패기 등은 태권도가 갖고 있는 수련정신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영역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행동양식의 하나였지만 보다 규정화되고 정립된 무도로서도 큰 몫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광복이후 태권도의 발전은 가히 놀라웠다. 지난 61년 태종, 을해로 꼭 31년체를 맞는 대한태권도 협회의 창립 이후 태권도는 그 골격 구조를 갖추며 이론과 실제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86년 아시아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은 태권도역사에 더할수 없는 호재였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이너서티브, 세계에 이렇다하고 내놓을 만한 「한국스포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등 태권도는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혜택속에 점차 국제 스포츠의 중심부대로 자리를 잡아갔다.

전세계 1백23개국 약3천만명의 동호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태권도는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만 본다면 이미 올림픽종목인 일본의 유도가 1천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레슬링이 수천명을 헤아리는 정도인 것을 감안할때 엄청난 거대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태권도가 발을 내딛고있는 현주소는 어디인가.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86아시아게임 정식종목에 이어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그토록 고대했던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어렵게 시범종목의 명목을 유지하는가 하면 94리호시마아시아게임에서는 정식종목에서 제외될뻔한 위기까지 몰릴정도로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곧바로 태권도의 활성화나 국제 스포츠로의 급진적인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려는 그 규모나 역량에 걸맞지 못하게 국제 스포츠계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 바로 그자체다.

바로 이점에서 태권도인들은 새로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금전이나 일부 몇몇 유력자들에 의해 이뤄질 수 없으며 그렇게 이뤄져서도 안된다. 스포츠는 스포츠 담게 그자체가 지닌 힘과 그안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야 한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금전이나 일부 몇몇 유력자들에 의해
이뤄질 수 없으며 그렇게
이뤄져서도 안된다.**

**스포츠는 스포츠답게 그 자체가
지닌 힘과 그안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야 한다.**



양적인 무한 팽창보다는 현재의 기반위에 자양분을 공급해 꽃과 열매가 피어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질적인 성장이다.

우선 경기운영방식에서 올림픽종목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체질방식을 도입하고 보다 다양한 기술과 득점방법도 개발해야한다.

스포츠의 3대요소의 하나는 관중이다. 관중에게 외면받는 스포츠는 살아날 수 없다. 태권도는 바로 이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참여하는 스포츠가 1차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현대스포츠 조류는 대리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보는 스포츠이다. 관객의 눈길을 모을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함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시대변천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세계태권도를 이끌어가는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인들은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태권도 상품을 자주 만들어야 한다.

지난 85년부터 협회 일각에서 추진하는 「태권도 문화」의 개념은 매우 참신하다. 한사회속에 반드시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듯이 태권도에 있어 문화개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또 단순히 무술의 한계를 뛰어 넘어 고급 정신수양 스포츠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2월9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있는 「제1회 태권도한마당」은 고유의 특성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경기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과감히 탈피해 태권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것은 보기 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태권도가 진정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기 위해선 유도 등 기존 올림픽종목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는 단일한 경기방식은 곤란하다. 차별화를 통해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절도 있는 모양새를 갖춘 품새 동작과 고도의 정확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격파는 영상매체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태권도만이 지닌 요소이다. 이런 장점은 더욱 살릴 필요가 있다.

이밖에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간편하고 보편적인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수련생만 3백만, 유단자 2백50만을 거느린 태권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어느 단체가 이토록 엄청난 인원과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인적·물적 자원의 힘은 지금부터 꼭 1년 전인 지난 91년 12월 전국에 메아리쳤던 「태권소녀 이명순을 살리자」는 캠페인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당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강원도 민통선의 태권소녀 이명순의 구명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 모금개시 일주일만에 1천2백여만원의 수술비를 만들어내는 강한 움직임과 과시했다. 어린 고사리손에서 부터 70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사랑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 기사를 직접 다뤘던 담당 기자로서 며칠전 건강이 회복돼 대회장에 나선 명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 지면을 통해 이 운동에 참여해준 여러 태권도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 번영이 있길 태권도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한다.

불우 이웃에 장학금 지급



▲ 승품 심사후 수련생들과 함께한 이연구사범

오늘 체육관에는 태권도의
합성 대신 이웃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다.

1992년 12월 26일 바로 오늘
경희체육관의 이연구사범은 올
해 정식으로 발족한 “연구 장학

회”에서 중학생 2명과 국민학
생 4명 등 총 6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은 물론 불우한
이웃에게 쌀 다섯가마를 나누어
주는 뜻깊은 날이다.

“제가 불우 이웃과 장학금 지
원에 뜻을 둔 것은 저 자신이 너

무나 어려웠던 환경에서 살아왔
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고 이연구 사범은 이러한 일을
하게된 동기를 밝힌다. 이사범
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정형편



△아이에게서 태권도 수련은 처음 시작과 즐겁게 진행된다.

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설울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 배우고 싶어하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며 살겠다는 각오를 키워왔다고 한다.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수조문해 한 두명씩 학비를 대주곤 했던 것을 가정형편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불우, 이웃 돕기에 나서기로 하고 연구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불우한 이웃을 찾기 위해 이 사범은 등촌동 동회를 찾아가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추천받았다.

이연구 사범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그가 잘살기 때문이 아니다. 처음 도장 문을 열때보다 훨씬 나아졌을 뿐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그의 부인 신명순씨(41세)

는 "우리는 못쓰면서 남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아직 집한채 마련도 못하였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흐뭇합니다."고 한다. 이사범도 "남들은 저희 더러 주게 파악도 못한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어렵게 성장했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도움이나마 남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덧붙인다. 결코 잘살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부부의 한마음이 오늘날 이렇게 남을 봉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이연구사범은 태권도 6단으로 서울시 태권도 협회 대의원이자 강서구 태권도연합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서구에서만 16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그는 그동안 등촌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와 백석국민학교 특별활동 태권도강사로 명예교사를 역임했고 수년간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온 태권도인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강서구청장,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와 청소년 선도 등의 공로로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연구사범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행이 없다고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동네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12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태권도를 수련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참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태권도를 배우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주력한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 있어 소중한 약속지키기와 정직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도를 맞는 그의 소망은 무엇보다도 매년 6월 중에 개최되는 강서구청장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과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연구사범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과 국민학교 6학년이 되는 그의 딸도 각각 3품과 2품을 따낸 태권도가족이다.

“어머니 태권도 교실” 운영



▲ 태권도를 수련하며 건강을 지키는 어머니들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은 밝고 건강미가 넘친다.

1992년 9월 1일부터 수성구 우진체육관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오전 10시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태권도 교실을 열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청자가 30명에 이르렀으나 집안 사정상 20명이 태권도 가족이 되어 도복을 입고 수련에 들어갔다. 손성도관장이 어머니 태권도 교실을 열게 된 것은 날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는 현실에 나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과 체력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태권도를 통해 실천해보기 위해서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점차 태권도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운동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운동은 태권도와 스트레칭 체

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처음에 어머니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몸의 유연성은 아주 나쁜 상태였으므로 우선 스트레칭을 통하여 유연성을 키우고 난후 태권도 기술훈련을 조금씩 서서히 시작했다. 스트레칭 체조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상쾌한 체력을 유지 할 수 있는데 손성도관장은 89년1월부터 91년10월까지 신천면에서 아침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주부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200명) 사회체육 지도자로 지도한 결과 유연성과 각종질병이 많이 좋아져 91년에 KBS TV에 방영되기도 한 바 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유연성에서 시작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학교부 등 전 관원생에게도 기존의 준비운동을 탈피하여 이 체조로써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우진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은 국민학교부 120명, 중등부 45명, 어머니, 일반 30명 등 모두 190명에 이른다.

어머니들의 승급심사를 실시할때는 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태극4장을 배우는데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어머니 태권도 교실 수련생들은 꼭 검은띠를 따서 할수있다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

손관장은 「어머니들이 무엇보다 태권도를 바로알고 행하여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한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태권가족



>이 향원



되근하기 비뻔게
나가고



휴일이면 종일
나가 있고



오늘도 또...

당신
또 나가는
거예요?

암!
틈만 나면
나가야지



올해는 뭐가
큰 족저를
훅대에
남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 할수 없어.

저이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네



저렇게
열심히니까
금년은 무슨
대회에서든지
큰 타이틀을
하자는
따겟군



외삼촌

오!
저절이구나

너,오세
가족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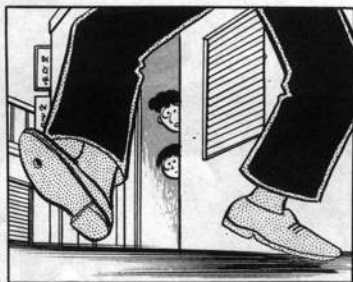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응, 마음먹은
일이있어 요즘
좀 바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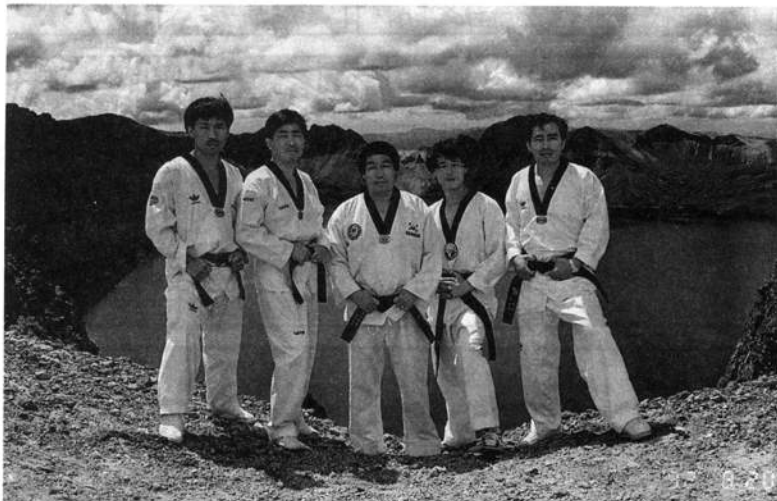


외숙모
외삼촌이 무척
바쁘신가
보죠

챔피언 타이틀
하나쯤 획득할
계획을
세우셨나봐



중국 연변의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는 김중삼관장



▲계자들과 백두산 천지에서서



김중삼 / 세종 체육관 본관장
· 중국 연변 대학 체육 학부 감사
· 중국 연변 태권도 협회 총관장

1990년 10월부터 광주 세종체육관에서는 중국 길림성 연변 대학과 연계를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체육 청소년부의 승인을 받아 1992년 5월 10일 세종체육관 김중삼 관장을 중국 연변대학에 태권도 강사로 파견한 바 있다.

중국 연변 대학교에 태권도가 소개된 것은 1988년도에 국제 태권도 연맹(ITF) 박정태 사무총장이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전인 1990년 10월에 연변대학 초청으로 세종체육관 회장 문일호, 본관장 김중삼, 이기성 관장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WTF 태권도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관용 전교장 선생님과 체육학부 관계자들로부터 세계 태권도 연



▲제1회 중국 연변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맹 태권도를 인정받았고 중국 연변대학과 세종체육관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후 1991년 7월에 연변대학 체육학부 김수산학부장, 허준호학부학부장(현재학부장), 허일봉 교수가 세종체육관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상과 태권도 보급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제5회 세종체육관 회장기대회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보고 중국으로 돌아간 바 있다.

현재 세종체육관 후원회(회장 정철준)에서는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여 연변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다.

김관장은 연변에서 전에 태권도를 수련한 관원들을 규합하여 품새와 겨루기 용어를 전부 세계 태권도 연맹 것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9개 체육관을 설립하여 관장·사범을 임명하고 체육관 단체 등록증도 발행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강화하며, 연변동포의 태권도 지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1992년 8월16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연변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치렀는데 9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심판은 김관장이 연변의 관장 사범들에게 심판 교육을 시켜 심판을 보도록 하였고 감독관은 세종체육관 관장들이 보도록 하여 성황리에 무사히 끝마쳤다.

대회 뿐만아니라 최초로 8월20일 150여명의 관원이 응심한 가운데 승단급심사를 실시하여 60여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지난 7월 여름 방학때는 사회인을 모집하여 태권도를 지도하였는데 할빈시, 목단강시·연길시·훈춘시·도문시·용정시·왕청현·화룡현·팔가자현 등지에서 150여명의 관원이 모여들어 3부로 나누어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7시간 30분씩 직접 뛰면서 태권도를 지도하였다고 한다.

현재 연변대학에서는 태권도를 체육학부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고, 국제 대회에 파견할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연변대학생 70여명의 수련생 외에 각 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수련생은 6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관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유단자를 배출해내고, 정기적인 시합을 통해서 기술향상을 꾀하며 중국 대륙의 태권도 보급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우선 93년 7월경에 세종체육관에서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연변의 관장·사범 15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과 심판 교육을 이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김관장(43세)은 최향은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녀(6세)김여울은 태권도 1품이다.

<광주 윤용석 편집위원>

김제시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명철회장



이명철/

1943년 전북 전주출생

김제시 이명철 정형외과 원장



▶ 92년 11월 제29회 협회장기대회를 주관한 이명철회장이 입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바쁜 진료시간에도 틈틈히 태권도 발전에 알게 모르게 묵묵히 기여해온 화제의 주인공은 김제시군 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철원장이다.

그는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이나 대회장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아 치료해주는 태권도인들의 담당의사이기도 하다.

김제시·군 에서는 「이명철 정형외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가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슬하의 2남 모두가 태권도 수련생일 뿐더러 운동종목과 밀접한 치료 전문의로서 선수와 수련생들의 부상치료를 맡으면서 였다고 한다. 이렇게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된 그는 1년전부터 김제시군 태권도 협회장까지 맡기에 이른 것이다.

이명철 회장은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무예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민족성이 깃든 운동』이라며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인의 스포츠로 힘찬 뿌리를 내려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음은 실로 우리겨레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제국교에서 열린 제29회 전북태권도 협회장기 개인 단체 선수권대회를 주관한 이명철회장은 상품으로 칼라TV 6대, 벽시계 6개, 손목시계 등과 7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칼라TV는 각 학교의 태권도부가 수상해감으로써 비디오촬영 등으로 기술습득과 상대선수의 장단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철회장은 새해 계획으로 김제시·군 태권도협회 발전을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할 계획이며 김제시·군 교육장기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군의 태권도인들은 아낌 없는 후원과 관심으로 태권도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 회장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한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이 땅의 전통무예 어떻게 할 것인가”

—택견, 수백치기 그리고 태권도—

이경명 /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오늘을 사는 지구촌 이천만 태권도인은 태권도의 역사를 논할 때 태권도는 수박, 수백, 택견, 택견 등으로 불리었던 전통무예의 맥을 전승, 체계화한 것으로 보고 국제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부상한 태권도의 유구한 무예역사를 기리고 회자되고 있다 하겠다.

수백, 수박희, 택견 등으로 불리었던 우리의 전통무예는 한 민족의 정신문화에 크게 기여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방어의 본능적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도 전통 민속놀이 문화로서, 호국무예로서 널리 시행토록 기리기도 했는데 조선시대의 승문, 유교사상과 예절시대의 무단, 탄압에 의해 거의 소멸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방후 몇분들의 저킴이(전수자)들이 간신히 그 맥을 보존, 전수하기에 이르렀다.

택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1983. 6. 1.)로 채택되었고 기능 보유자로 송덕기(1893-1987); 신한승(1928-1987) 두분을 지정하였다. 택견은 당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한글로 「택견」이라 표기하였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택견은 한발로 서로 상대편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무예, 수백은 풀이 마주 앉아 손바닥을 마주치는 놀이, 택견/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택견이 발 위주임에 비해 손쓰기가 현묘한 것으로 알려진 수백치기는 수박(手搏, 手拍)이란 이름으로도 몇몇 문헌에 보이며 「해동죽지」

의 수백(手癖)이란 조항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옛 풍속에 손 기술이 있으니 옛날 검기술로 부터 온 것이다. 대좌하여 서로 양손으로 쳐서 오가는데 만약 한 수라도 법에 어긋나면 문득 타도되니, 이를하여 수백치기라 부른다.」

그리고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있는 고구려의 「선배」에는 수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송도(松都)의 수박(手拍)이 곧 선배 경기의 일부이니, 수박이 지나(支那)에 들어가 권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 유도가 되고 조선에는 이조에서 무풍(武風)을 천시한 이래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하니라」

우리나라 전통 무예의 맥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우리 전통 무예의 모습(몸짓)이 전승되어 온 민속연희나 우리의 춤, 놀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은 여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수백 또는 수박 등 표기의 혼란은 순수 우리말의 본래 명칭을 한자의 음을 빌어 적은데서 왔다고 판단된다.

수백치기의 기본은 그대로 손백치기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손백을 치는 순간 발생하는 빛과 소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어 양의 기운(陽氣)을 퍼지게 한다. 손백치기와 마찬가지로 발로 땅을 밟는 발 동작은 발바닥을 통해 땅의 기운(地氣)을 받아들여 각종 동작의 수행이 끝 다리, 무릎 및 허리관절을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원리인데 택견, 수백치기는 품발기를 발동작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송덕기, 신한승 두 기능 보유자는 사제지간이었으며 1984-1987 시기에 서울, 부산, 충주 등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신한승은 시연에서 보이는 기법이 현저하게 송덕기와는 달랐다는데 후학들은 송덕기는 원형의 보존에 역점을 두었는데 반해 신한승은 체계적 정리로 변형된 태권술을 보여 그의 학구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며 신한승은 구전되고 있는 수백치기를 복원하려는 야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여기서 태권과 수백치기에 관해 기법상의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으나, 유래가 원시투기에 기원하고 한민족의 전통성을 이어 받은 민족 고유무예의 분류로 간주함이 옳다 하겠다.

이 땅에 민족 전통무예를 남겨 주려는 두 기능 보유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현재 태권의 보급은 부산, 서울, 충주에서 면면히 보급 계승되고 있는데 부산은 이용복, 충주는 정경화, 태권/수백치기는 1987년부터 중앙문화센터(서울, 안국동 소재)에서 육태안이 강좌를 맡아 지도보급하고 있다.

올 가을을 강좌부터 정경화는 태권 강좌를 맡고 있으며 그의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 서울활동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에 관한 문헌으로서 현재 발간된 것을 보면 「전통무예 태권」(이용복저 1990/시호간) 「전통무술 태권」(박종관 정리자 1988/서림문화사간) 「우리무예이야기-다시찾은 수백치기」(육태안 1990/학민사간) 등이다.

이렇듯 태권, 수백치기는 이 땅의 역사와 같이 한 전통무예로서 지킴이(전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승의 길을 걷고 있다.

태권도의 전통성은 태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율가 라는 의문과 태권도 기술의 원형은 마땅히 태권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명제는 아직도 명쾌히 규명돼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태권도인은 태권도가 현대화된 기술적 체계로 이땅의 전통무예의 맥을 잇는

무예인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없이 태권도를 무도 스포츠로 기리며 2천년대 올림픽 채택의 비전을 펴고 있다.

태권도는 60년대 경기화에서 출발, 70년대 국제화 정책으로 짧은 시기에 급성장하여 이제는 「멀티 스포츠(Multiple Sport)」로서 각광 받고 있다.

태권도가 겨루기/경기위주로 치달음에 태권도가 함장하고 있는 무도적 학습단원(품새, 격파 등)이 소홀해 지고 있고 그로해서 생활체육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만시지탄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무도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12월 태권도한마당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식은 신선한 감동을 일깨워 준다.

태권도는 품새, 격파 그리고 겨루기의 3박자로 구성된다.

그 3박자 리듬을 타고 예술, 무도적 본질을 터득하고자 하는데 그 수련 과정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국기를 통한 활인정신을 배양, 추구하는 무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권도한마당 경연에는 앞으로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생활체육인들(태권도인)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도 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이 땅의 태권도인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이 같은 맥락의 차원에서 볼 때 국기원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제7기 태권도 사범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1992. 9. 18-30)교육생에게 태권/수백치기 강화할에는 전통무예의 문화볼 꽃피워야겠다는 애정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

우리 태권도인은 태권, 수백치기를 이땅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무예로 인식하고, 태권도의 이름 아래 한 장르로 포용하여 무도 스포츠로서 일관된 태권도 역사 정립과 전통무예의 원형을 보존, 전승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창조적 자세로 21세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위생 품새에 관한 연구*

(고려 품새를 중심으로)

* 82호(92, 가을)에 이어 계속.

4. 위생품새의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원리(調心原理)

지금까지 설명한 준비행공을 실시하여 위생품새를 연공하게 되는데 위생품새시 중요한 자세나, 호흡, 정신집중 3요소는 현대품새나 위생품새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현대품새는 조직적인 율동과 속도 박자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위생품새는 조신과 조식 조심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공격과 방어수단이 아닌 기를 이용한 연공으로써 중요시되고 있다. 위생품새를 연공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 원리씩 차례로 보겠다.

1) 조신 원리

태권도위생품새의 연공은 비교적 엄격해야 하며, 수련도장의 분위기도 역시 엄숙해야 한다. 위생품새의 연공시 조신원리는 신체의 상태에 따라 정공(靜功)과 동공(動功)으로 분류하는데, 정공은 조용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멈춘자세에서 단전 호흡 등의 도납⁴⁵⁾을 통해 기를 운행하고 심을 집중시켜 몸과 마음을 연공하는 것을 말하며, 동공은 신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외공이내정(外功而內靜)”이라 하여 외는 움직이고, 내는 정적인 상태를 말한다.⁴⁶⁾ 이렇게 조신의 연공을 위생품새에 적용할 경우 내로는 정적으로 혈액이 오장육부에 대량분배되고 장부의 기가 생산되며 조절되는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므로, 내공으로 표현되어 인체내부의 정·기·신이 단련되어 내기를 연마함으로써 내장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조절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양생⁴⁷⁾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로는 동공으로 신체 외적인 행공의 수련효과를 볼 수 있어 외공이라 하는데 근육(肌肉)과 골격(骨格), 오관(五官) 등을 원활히 하여 피부 및 신체외부의 각종기관을 보호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하 태 은 / 경희대 태권도학과·단국대
대학원 졸업·현 육군 대위

45) 도납(吐納)이란 도가수련의 일종으로 입으로 더러운 기를 토하고 코로 신선한 기를 마시는 것을 말하는데 뒤에 조식원리(調息原理)편에 자세히 설명하고 약속한다. (필자주)

46) 錢存澤 : 氣功原理與應用, 上海, 交通大學出版社, 1989, p.172참조

47) 양생(養生)이란 생명으로 하여금 적시적량하게 생명의 물질요소 중 이익이 되는 자연계를 섭취하는 것으로, 생명의 해로운 요소를 피하고, 또한 자연계중 생명조건에 해가 되는 자연계를 부단히 개조하는 것으로 인류 생존과 향유의 환경에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필자주)

위생품세는 조신 뿐 아니라 조식과 조심을 동시에 행공하여 신체의 내·외부를 균형잡아 경력의 유주를 따라 경혈의 운행을 돕게 되는데 이에따른 고려품세의 주의점을 알아보면,

① 각 관절부위를 제어하면 안된다. 관절부위를 제어 할 경우 경혈의 흐름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며 손이나 발 끝에 타격후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깨와 허리, 장골 부위의 힘을 잔다 하여 제어시키지 말고 약간(15도)씩 틀어(공격 방향으로) 주는 것이 좋다.

(그림 21 참조)

② 모든 동작은 부드럽게 호흡에 맞춰 속도를 조절한다. 발의 이동시 지면에서 높게 띄워 이동하기보다는 지면을 스치듯이 이동하는 것이 호흡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덜 주며 각 동작에 맞는 호흡법을 실시하여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켜 운행하는 것이 좋다.

③ 손과 발의 동작끝을 끝까지 펴기보다는 약간 멈춰서 관절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마찬가지로 경락의 흐름을 막지 않는 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과 발에 지나친 힘을 주기보다는 가볍게 뛰는 것이 좋다. 물론 이와 같은 조신위리는 비교적 신체상태가 좋으며 1단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지나지않음을 밝혀 두며 조신법을 입식(立式: 신체 상태가 비교적 좋은 사람에게 적용), 외식(臥式: 노년층 또는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 좌식(坐式: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적용) 중⁴⁸⁾ 입식법에 중점을 둔 행동법이다.

추가적으로 태권도 위생품세 연습시 비만인 사람은 동작을 크게하고 약한 사람은 동작을 작게한다. 이는 동작이 크면 사하고 적으면 보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림 21)



《몸통 반대지르기》



《원손날 몸통 바깥막기》

2) 조식 원리

한의학에 있어서 호흡법은 조절에 의해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대자연의 리듬과 조화하는데 있다. 호흡법을 요가에서는 프라나마야(조식법, Pranayama)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몸이 정화되고 조화로운 생리기능이 이루어져서 신체의 건강을 이루며 자율신경의 중추인 뇌간에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정신 건강을 진전히 한다고 한

48) 좌식(坐式)은 자연반슬좌(自然盤膝坐: 평상시 책상다리식으로 양하퇴를 교차시키고 앉은 자세) 단반슬좌(單盤膝坐: 양반중 한쪽 발을 반대발 하퇴 위에 놓고 앉은 자세) 쌍반슬좌(雙盤膝坐: 양다리를 교차시켜 오른 하퇴를 왼하퇴위에 왼하퇴를 오른하퇴 위에 들어 올려 앉은 자세), 좌식(跏式: 양발을 어깨넓이 만큼 평행으로 벌리고 선 자세), 자유식(自由式: 고정된 자세가 아닌 생각대로 취하는 자세)등으로 크게 5가지 좌식으로 나눈다. (필자주)

다. 49) 50) 호흡을 통하여 체내에 보내는 각종 방법이 있으나 대별하면 동공과 정공으로 나눈다. 동공은 호흡법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면서 행하는 것으로 유하게 움직이는 방법과 격하게 움직이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정공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자세에서 호흡법을 하게되는데 그 자세에는 좌, 입, 와로 크게 세가지가 있다. (조신원리참조) 호흡법의 기본이론은 “연정화기 연정화신 연정환허(煉精化氣 煉氣化神 煉神還虛)”로서 정(精)을 단련하면, 신(身)을 단련하여 도(道)의 경지에 이른다. 따라서 정·기·신은 호흡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51) 52) 호흡법을 통해서 목 높은 경지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초보에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안정,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낮은 기가 정제해 있는 사람인 경우 호흡법을 통하여 체내의 낮은 기를 배출 시키고 체내에 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호흡법에 의하여 평정맥을 신속시키고, 내장에 자극을 주어 운동을 촉진시킨다. 그리하여 혈액을 청결히 하는 한편 호흡과 혈액의 순환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53) 54) 사람의 호흡은 복식호흡(膈式呼吸), 흉식호흡(胸式呼吸) 혼합식호흡(混合式呼吸)으로 크게 3종으로 나누는데 사람의 호흡빈도는 연령, 성별, 신체자세, 외기 온도, 거주 의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태권도위생품새시 조식법을 이용하여 연공할 경우 무단자 보다 유단자 호흡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신체 각 기관의 산소의 수요량도 현저히 증가하게되고 맥박빈도도 증가한다. 이렇듯 위생품새의 연공시 기혈을 조절하고 경락을 윤통시키며 기체의 평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게되는데 총괄적으로 위생품새의 조식원리에 따른 수련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근육의 수축운동으로 인하여 체내에 허다한 기관과 계통 즉 순환계, 호흡계, 내분비선(內分泌線), 신장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기체내의 정체적 조절을 이루게 한다.

위생품새의 조식은 숨을 고르는 것으로서 기공 단련의 3대요소 중 하나로 통상 조식은 한번 숨을 마시고 뱉는 동작, 혹은 한번 트하고 마시는 과정을 일식이라 칭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단전⁵⁵⁾에 습취⁵⁶⁾가 정이 충만하면 후끈한 단기의 열을 느끼고 그 기는 머리에 모여 장하여지고, 따라서 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심부에 신이 명하여진다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듯 호흡법은 위생품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호흡방법을 몇가지 알아보면,

① 자연호흡법(自然呼吸法): 정상적인 생리적 호흡

② 복식호흡법(膈式呼吸法): 복식호흡은 2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순호흡법으로 흡기 시에 횡경막이 하강하고 복부의 외면이 볼록 튀어 나오는 것을 말하며, 호기시에는 횡경막이 상승하고 복부는 함몰(陷沒)되고 횡경막이 상하 이동 하므로 복벽근육의 전·후운동으로 복식에 순호흡이 형성된다. 둘째 역호흡법은 흡기시에 복부가 함몰(들어듬)되고 호기시에 복부의 외면이 볼록 도출 된다.

③ 비흡구호흡법(鼻吸口呼吸法):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 쫓는 법.

④ 단전호흡법(丹田呼吸法): 단전호흡법도 2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흡기형 단전호흡법은 흡기와 동시에 복압(腹壓: 복부의 압력)이 형성되며, 둘째 호기형 단전호흡법은 호기 시에 강한 복압이 형성된다.

⑤ 정제호흡법(停滯呼吸法): 이 방법도 2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흡(吸)-정(停)-호(呼)식은 한

49) 이태영: 요가의 Citta-Vritti-Nirodha의 철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논문, 1984 참조

50) 차영애: SAMKHYA-YOGA철학의 전변철과 요가수행, 동국대 논문, 1981, 참조

51) 공원진편: 정교향제내경, 갈은책, 1981, pp.11~167 참조

52) 임준규: 중국기공, 서울, 보진신간사, 1987, pp.83~86 참조

53) 김경학: 열자, 서울, 삼경당, 1985, p.310

54) 이빈영: 건강비요, 서울, 의문사, 1977, pp.74~81 참조

번 돌아마시고 정지 한 후 내쉬는 것을 말하며 호-정-흡식방법은 반대의 원리다.

⑥ 소주천호흡법(小周天呼吸法): 이 방법은 진기운행법으로 코로 돌아 마시고 동시에 기를 모아서 단전에 도달케 한 후에 회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임맥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며 흡기시에 동맥을 통하게 하는데 이는 회음에서 척추로 순환하며 척회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⑦ 단상경제호흡법(單相控制呼吸法): 이 방법도 2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장호수흡법(長呼隨吸法)으로 내쉬는 것을 길게 흡입하는 것을 짧게 하는 법과 장흡수호법(長吸隨呼法)로 마실때 길게 뱉을때 짧게 하는 방법이 있다.

⑧ 6자토납법(六字吐納法): 병을 치료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호"하는 기원으로 위, 생, 태, 권, 풀, 새 자를 생각하며 호흡하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 사범은 숨을 뱉을시에 6자를 생각하고 보법은 숨을 흡기시에 6자를 생각하며 숨는다. 이러한 호흡법은 신경중추의 흥분상태를 조절하고 식물신경기능을 조절하며 대뇌피질을 조절하고 진기를 생성하고 경락계통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복식호흡의 생리작용은 폐의 환기량을 증가 시키는데,

- ㄱ. 폐의 환기량을 증가시킨다.
- ㄴ. 폐의 호기량을 증가시킨다.
- ㄷ. 호흡운동의 에너지소모를 감소시킨다.
- ㄹ. 심장혈액 순환을 촉진, 심장부하를 감소시킨다.
- ㅁ. 심장과 대혈관의 운동을 촉진, 혈관생명을 연장하고 조기노화방지 작용을 한다.
- ㅂ. 흉격 복부근의 수축력을 증가하고 내장혈액 순환을 증가시킨다.

8. 대뇌피질(大腦皮質) 활동을 촉진하여 내장의 조건반사가 형성된다.

○ 호흡의 특유작용을 한다.

이런 반복호흡으로 인한 자력조식을 실시하게 되면 대뇌피질을 중동하여 조절하고 기운과 관절의 피동운동에 자극을 주게 된다. 그러나 유급자의 연공중 호흡이 실조된 경우는 조식방법이 자신에게 불합리하여 발생되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단전호흡법을 터득하여 위생풍채를 실시함이 바람직하고 고혈압인 사람은 길게하고 저혈압인 사람은 흡을 짧게 한다.

3) 조식 원리

태전도품세의 연공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심적수련없이 무공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神), 심(心)적 수련에 반드시 신(身), 식(息)수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심(調心)을 조신(調神)이라 하는데 이는 무공시에 정신과 의식, 사유활동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공수이다.⁵⁶⁾ 조심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수일법으로 소위 수일, 즉 행사 의식사유활동을 신체 조직기관의 한 점에 혹 구체적인 사물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의수신체적도개부위(意守身體的某部位): 신체부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 ㄱ. 의수단전(意守丹田): 단전에 뜻을 두는 것
- ㄴ. 의수회음(意守會陰): 회음에 뜻을 두는 것
- ㄷ. 의수용천(意守湧泉): 용천에 뜻을 두는 것
- ㄹ. 의수대지(意守大趾): 대지에 뜻을 두는 것
- ㅁ. 의수백회(意守百會): 백회에 뜻을 두는 것
- ㅂ. 의수명문(意守命門): 명문에 뜻을 두는 것
- ㅅ. 의수인당(意守印堂): 인당(두 눈썹사이의 중간점)에 뜻을 두는 것

55) 단(丹)이란 음중양화의 화색을 일컬음이며, 화는 형질이 아닌 기체로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공리(空靈)이므로 무허유(無何有)의 명(名)이요, 일기(一氣)의 원(原)이 된다. 그리고 화(火)가 동(動)함에 있어 력(力)이 생발(生發)하는 것인즉 력(力)에는 화기(火氣)가 생동하므로 화기가 없는 력(力)은 없는 것이다. 전(田)은 모이는 장소와 위치의 뜻이며 하(下)란 경기신중의 아래를 일컫는 것이니 하단전(下丹田)이란? 천기, 지기가 단기로 화하여 인체의 하위(下位)에 모이는 자리가 하단전이다.

- 고경민: 국선도(3), 서울, 종로출판사, 1974, p.8

56) 呂光榮, 劉麗玉: 氣功學基礎,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202-210 참조

- . 의수비단(意守鼻端): 코끝에 뜻을 두는 것
- 스. 의수내장(意守內臟): 내장에 뜻을 두는 것
- 스. 의수단중(意守•中): 단중에 뜻을 두는 것
- ㅋ. 의수경락(意守經絡): 경락에 뜻을 두는 것이 있고,

② 의수자연경물부위(意守自然景物部位): 자연 경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의식활동을 자연 경물에 즉,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에 정신을 집중 하는 것

③ 의수개미호적염두부위(意守介美何積念頭部位): 아미담고 좋은 곳에 정신을 집중 하는 것

④ 의수동작부위(意守動作部位): 동작에 정신을 집중 의식 활동을 동작변화에 집중시키는 것

⑤ 의수호흡부위(意守呼吸部位): 호흡에 정신을 집중 하는 것

⑥ 의수각부부위(意守脚步部位): 다리의 움직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 등이 있고, 둘째로 고수허무법(固守虛無法)으로 정신 집중시에 모든 사물과 신체를 망각하고 정신활동을 정지 시키는 방법, 셋째로 중화법(中和法)으로 행공시 의식 활동이 온정(穩定)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조신의 작용은 내장기관협조, 기혈의 조화, 영위조화(榮衛調和), 전신이 고도집중동일 기체의 평행작용장부의 조절작용 등에 작용한다. 막연한 품새진행보다는 위와 같은 조신(心)원리를 적용하여 연공하는 것이 위생품새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5. 위생품새의 인체기능적 작용

태권도 위생품새는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동양사상을 지녔으며 태권도신체사상으로 승화되어 건강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체의 일원론을 내세운 道를 추구하고 있고 뜻을 품고 있는 행동철학이라고 보아진다. 생체에너지도 반드시 형이상적인면과 형이하적인 면을 품고 있어 위생품새와의 경락과 호흡은 일치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태권도위생품새의 연공은 경락의 유통을 바로 잡는 것으로 그의 중요성을 인지 하여야 하겠다.

경맥의 순환하는 순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 중초에서 폐로 올라가 수태음폐경으로

부터 시작하며(폐경-대장경-위경-비경-심경-방광경-신경-심포경-삼손경-담경-간경) 경을 따라 서로 전하여 족점음간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폐로 돌아와 소경의 순환이 진행된다. 또다시 폐로부터 목, 얼굴로 올라가 정수리에서 구간의 후면을 따라 내려와 음부를 거쳐 정중선을 따라(임맥과 독맥으로 되어)소경과 연결되며 14경의 순환 체계가 형성된다. 이렇듯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동일한 경맥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소, 천식 증상이 수태음폐경에서 발생되지만 족소음신경에서 발생 되어도 해소, 천식 증상이 나타나므로 어느 부분만을 갖고 치료함은 정확치 못하며 치유를 볼 수가 없으므로 이럴때 경락의 통로와 결합시켜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위생품새의 치료방법인 것이다. 이 때 침구학에서는 단순한 치료로 치유할 수 있고 양약에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그 부위만 치료하였지만 태권도위생품새 연공시 위생품새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유기체에 존재하고 있는 경락을 운동시켜 기와 혈을 고르게 유통시켜 줌으로써 음양의 조절을 꾀하는데 요법이 있다.

이러한 위생품새의 연공을 통한 인체기능의 작용을 종합해 보면,

① 대뇌피질 활동을 개선한다.

인체의 다양한 활동은 대뇌피질 신경세포의 흥분과 억제에 영향을 준다. 또한 위생품새 연공시 신경과 동안신경을 보호, 전전케하여 시력회복에 양호한 작용을 한다.

② 심장을 도우고 혈관과 입파계통에 건강을 준다.

위생품새 연공시에 인체 각부분의 기류와 관혈의 활동, 모세혈관 개방, 정맥과 임파의 회류에 가속이 붙어 심장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도공의 식물 신경을 조정하여 혈관수축과 교감신경 흥분성강저와 혈관 확장의 미주 신경의 흥분성제고에 영향을 주어 관상동맥을 확장, 혈액량 증가, 혈액응고 속도저하, 유기질감소 등의 심장회복을 이룬다.

③ 호흡기능을 증가시키고 폐활량을 확대시킨다.

④ 소화기능과 체내물질 대사능력을 촉진시킨다.

⑤ 기육을 튼튼하게 하고 골격과 관절의 활동을 원활히 한다.

⑥ 기혈을 조화시키고 혈위들을 저함시키며 경락을 서통시키고 평형을 조절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부분적 치료와 포괄적인 심신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생품새의 특수성이라고 보아 진다. <그림 21-1, 참조>

(그림 21-1, 12경맥의 순행 부위)

손		발	
음	양	음	양
수태음폐	수태양소장	족태음비	족태양방광
수소음심	수양명대장	족소음신	족양명위
수궐음심포	수소양삼초	족궐음간	족소양담

“여러분과 함께 정보화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태권도계의 온라인정보망 체계 구축—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지부, 등록도장간의 정보공유와 상호교환을 위해 93년 상반기중 「온라인 정보망(컴퓨터통신망)」체계를 구축합니다.

2000년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태권도계의 총체적 대응, 「태권도계의 온라인정보망」구축에 솔선 참여합니다.

이용정보

- 태권도계 정보 : 전자우편, 게시판, 자료실, 전자회의
- 일반정보 : 「하이텔」에서 제공하는 300여가지의 정보

설치방법

- 각해당 전화국에 가서 「하이텔 서비스가입신청서」 작성(도장 지참)
- 신청서 상단에 「태권도협회」라고 기재
- 전화국으로부터 설명서와 함께 단말기 무상인도
- 전화선에 연결
- 전화국으로부터 확인후 개통

* 태권도계정보는 93년 6월 개통 예정
지금 신청하십시오!



한국 태권도, 올림픽의 감격



이 선 희 / 대한체육과학대학
'92 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 미들급 금메달

이번 올림픽 출전은 나에게 행운이었고 주위 분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권혁중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의 열의와 성의 때문에 부족한 나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졌던 것 같다. 우선 이 모든 영광을 이분들에게 돌리고 싶다.

나에게 주어진 태능 생활은 정말로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엘리트체육인들과 나란히 생활할 수 있을 지 앞이 막막했다. 새벽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 3시부터 6시까지, 야간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의 하루 태능일과는 자신과 싸워야 하는 정말로 숨막히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시합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팀들과 경기를 가졌고 현지 적응훈련을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대형 히터 2대를 가동하고 낮 2시에 뛰는 크로스 컨츄리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부족한 것이 많았으므로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배로 노력을 했다. 우리의 이런 힘든 훈련은 자신들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드디어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시합이 먼저 있는 팀은 1진으로 18일날 출발하였고 뒤에 경기가 있는 팀은 23일날 출발할 예정이었다. 태권도 경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있을 예정이었고, 나는 이틀째인 4일날 경기가 있었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했다.

드디어 23일, 우리는 자랑스런 마음으로 공항을 향했다. 아주 긴 여행길이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고 왠지 모르게 떨려오는 것 같았다.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의 눈에는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열의로 빛나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아쉬운 이별은 잠시뿐 우리는 긴 여행 끝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땅, 스페인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선수촌에 입촌하였고, 숙소를 배정 받았다. 숙소는 우리나라 콘도와 비슷했으며, 식당은 모든 선수가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날부터 우리의 경기는 시작되거나 다음없었다.

25일 올림픽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거행되었고 각 나라 선수들이 국기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이 많은 선수들 중에 내가 시합에서 겨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에게 주어질 위치가 더욱 새로워지는 것 같았다. 26일부터 31일까지 우리는 선수촌 본부에서 배정받은 시간대로 20분 가량 떨어진 체육관에서 연습을 했다. 연습장은 4개의 연습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상대 선수의 훈련을 볼 수 없었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각 나라 코치선생님들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었다. 주어질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알차게 훈련을 하고 선수촌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모두 휴게실에 모여 응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시합일이 다가왔다. 3일날은 남자 웰터급의 하태경, 헤비급인 김재경 선수의 경기와 여자 밴텀급의 황은숙의 경기가 있었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헤비급의 김재경 선수의 게임이었다. 우리나라 코프 분들과 우리 선수단은 하나가 되어 응원을 했으며 스페인 태권도인들도 이긴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해주었다. 이날 우리나라는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3번의 예국가를 울려 퍼지게 했다. 4일 날은 여자 라이트급 정은옥, 미들급 이선희, 남자 플라이급 서성교 선수의 게임이 있었다. 이날 우리나라는 여자 라이트급의 정은옥 선수가 대만 선수에게 은메달 진입에서 지고 말았고 남자 플라이급의 서성교 선수도 은메달 진입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날 게임에서 오스트리아 선수와 제일 힘든 경기를 했다. 모두 나보다 신장이나 힘이 좋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어려움이 많았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생각이 났다.

5일날은 남자 페더급 김병철 선수와 여자 핀급의 모선영 선수의 게임이 있었다. 모선영 선수는



▲ 여자 대표팀선수들과 함께(우측끝)

멕시코 선수에게 우세패로 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 금3, 동1, 여자 금2 동1의 성적을 거두었다.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시내에서 가까운 명소들을 몇 군데 돌아다녔다. 이런저런 생활을 하는 동안 드디어 폐막식이 다가왔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의 우승 장면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했다. 각 나라 선수들의 아쉬운 표정과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폐막식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다.

한국에 돌아와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고마움을 가진다. 한가지 아쉬움과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정식종목과 비종목의 차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고생은 정식이나 비종목이 똑같이 해서 목에 건 메달인데도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나 자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걸, 무엇보다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우리와 평준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2000년 올림픽대회때 금메달을 따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제 29회 전북협회장기 대회에서 핀급 금메달을 따낸 강정우

강정우/ 전주평화국교 5학년
전주 동아체육관

지난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김제국교 강당에서 열린 제29회 전북협회장기 대회에서 빼어난 기량을 자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강정우는 학교에서도 우등생이다.

6·25때 소아마비 불구가 되어 다리를 제대로 못쓰는 아버지의 희망이자 꿈인 강정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쓴 「태권도 일기」



▶ 금메달을 목에 건 정우와 아버지(왼쪽), 강동화사범(오른쪽)



▲5살때 정우가 태권도를 수련하던 모습(왼쪽)

나의 아버지는 다리를 사용 할수없는 장애자이다. 6.25 때 소아마비 불구가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나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게 하셨다. 나는 5살의 어린 나이에 "동아체육관"에 입관하여 도복을 입고 흰띠를 두르고 기본동작을 배웠다. 아버지는 관장님에게 우리 정우를 훌륭하게 키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일 매일 체육관에 찾아 오셨다.

강동화 관장님은 태권도 기본동작을 차근 차근 정확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다. 비가 올때나 눈이 올때나 어린 나를 훌륭한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집에서 체육관까지 런닝을 하면서 출퇴근 하셨다. 관장님의 우렁찬

기함 소리에 맞추어 힘차게 동작 하나 하나에 열을 올렸다. 배울수록 재미있고 신이나는 "태권도"는 어린시절부터 배워두면 무척 귀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대부분의 경우 끈기가 없고 집중력이 부족것 같다. 태권도를 배운지 1년이나 2년이되면 그만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공부 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영세민 1종으로 나라에서 주는 쌀과 식량으로 살아가고 있다. 학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받을 때면 다른 아이들 보기가 창피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럴때 일수록 운동을 열

심히 하여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꼭 되겠다고 다짐했다.

태권도 수련으로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강하다 보니 공부를 더 잘할수 있었다. 학교가 끝나는대로 체육관으로 가서 남들보다 몇배나 많은시간을 태권도를 수련하며 꿈을 키웠다.

5학년때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 제29회 회장기쟁탈전에서 6학년 형들과 겨루기하여 형들을 모두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학교성적도 올라 전교 2등이라는 명예도 얻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니 공부도 잘 되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2000년 올림픽이 열릴때는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따내 아버지의 목에 걸어 드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행사 기록

새 . 격 . 광 . 영 . 대 . 회 우 . 4 . 자

제 1 회 태권도 한마당 (12.9~11, 올림픽제 2 체육관)

(높이뛰어차기)

- ▲ 소년부 : 김현우(화랑체육관)
강진홍(무지개체육관)
이재동(학생중)
김성훈(장석체육관)
황규정(미동국)

- ▲ 청년부 : 이경택(상무관)
노석일(경희대)
오영화(체과대)

(멀리뛰어차기)

- ▲ 소년부 : 전준영(무지개체육관)
이재동(학생중)
김성훈(장석체육관)
허영희(장석체육관)
이승훈(장석체육관)
유권태(미동국)
- ▲ 청년부 : 홍순철(경희대)
이안호(경희대)
오영화(체과대)

이성진(체육선교신학교)

(발격파)

- ▲ 청년부 : 강익필(청룡체육관)
최형호(경희대)
고한이(경희대)
김봉근(경희대)
임장섭(경희대)
이덕희(체과대)
성낙훈(체육선교신학교)
김영국(제우교역)
- ▲ 장년부 : 이해준(동구체육관)
장신철(남창체육관)

(손날격파)

- ▲ 청년부 : 강석봉(라이온체육관)
김호진(대동체육관)
오정주(경찰청상무관)
김영우(경희대)
신성진(체육선교신학교)
유한욱(순천공고)
- ▲ 장년부 : 이해준(동구체육관)
박재구(청무체육관)
조용구(문경체육관)
정병모(효성체육관)

(주먹격파)

- ▲ 청년부 : 오정주(상무관)
최형호(경희대)
김호진(대동체육관)
- ▲ 장년부 : 정병모(효성체육관)
최대용(국기원)
김기용(성광체육관)

(종합격파)

- ▲ 구경회(성인사법단)
허정행(체육선교신학교)
김희진(경희대)
소몽신(체과대)
곽태경(한체대)
장육진(체육선교신학교)
이재열외13명(무지개체육관)
: 김화영, 강민홍, 변용일, 김현태, 전준영, 김진태, 류승호, 오승경, 이왕호, 박수환, 송수봉, 최대성, 전제민, 김해용, 황준욱)
김태호(경희대)
오영화(체과대)
이경남(미동국)
남승현(성인사법단)
- (기쁘ں풀세)
▲ 소년부 : 조은영(문래체육관)
나유유(문래체육관)
조우석외 5명(봉일체육관)

박병희, 김도형, 송형진, 박도현, 남승훈)

임정이(정진체육관)

서형훈의 4명(정의체육관: 임종근, 최일호, 이승훈, 장정은)

박상균의 9명(성광체육관: 엄진용, 한상헌, 유시훈, 정외현, 이승환, 최승봉, 김경득, 신현수, 황세훈)

▲ 청년부: 안석호의 18명(경희대: 안석호, 홍순철, 정근표, 고한이, 장희성, 구본원, 장도영, 임대송, 진진호, 정태원, 강성철, 문규철, 김희진, 박시욱, 조병삼, 유영식, 노석인)

강익필(청봉체육관)

황병권의 9명(리라공고: 이명복, 박종범, 노정호, 김성호, 조미래, 이지은, 함진희, 김지환, 박태웅)

오영화(체과대)

한상철의 4명(상무관: 이영달, 안효진, 유경선, 남궁숙) 양성우(체과대) 차민영

▲ 장년부: 김영하(탑라체육관) 고희석과 그가족(한국체육관: 고희석, 정과자, 고미현, 고진필, 고진수, 김혜연) 박용국

임순호의 8명(박덕규, 박완규, 오재대, 김영국, 김형준, 이승훈, 김유은, 김세준) 박정환(생활체육협의회) 이규현

▲ 여성부: 어머니 20명(상주주

부대학: 남정란, 임명순, 권재희, 권란애, 윤철순, 최희분, 박순희, 이용신, 채병수, 김숙남, 이혜옥, 김상자, 이말순, 이태순, 김연희)

고진필의 2명(한국체육관: 고미현, 김혜연)

서영애(청복선체육관)

할머니 8명(홍일할머니회: 최태임, 조필순, 이원주, 홍지연, 이부애, 최복만, 홍정숙, 서정자, 임달순, 김덕선)

(친척종새)

▲ 청년부: 정근표의 1명

(경희대: 김희준)

한진옥의 1명(체과대: 김형규)

정보성의 1명(경희대: 정근표)

▲ 장년부: 우성인(태양체육관)

할아버지회: 김순철, 진승희, 박봉순, 한철유, 박상범, 김영기, 서정남, 윤홍식

▲ 여성부: 김유정의 3명(체육선교신학교: 박옥이, 김명희, 김선영)

이지은의 4명(미동국교: 김호정, 나영규, 김종성, 간명기)

(건강종새)

홍승기의 11명(인천대: 권형진, 김용한, 김유창, 조성일, 조영근, 유인창, 신대식, 장성주, 김진우, 신원덕, 김현규)

문경희의 24명(은평여고: 류은화, 한재옥, 신진명, 서은경, 김남영, 이애영, 방현주, 조은주, 이의정, 손명옥, 송혜란, 김은

경, 김은정, 권명주, 안보영, 최은혜, 임은경, 이지은, 강성래, 김숙경, 김성희, 안성화, 최은하, 이해란)

박수현의 16명(철원상무체육관: 박수현, 안성열, 심우현, 김인선, 송태환, 심승기, 손근일, 임기환, 김선원, 이태훈, 김진형, 임준배, 김인철, 김혜선, 권혜진, 최우희, 이은하)

송원우의 7명(체육선교신학교: 김주선, 장경철, 정성국, 허정행, 원태호, 김상범, 박준태)

강지원의 16명(어린이벚꽃: 강현석, 신수현, 조윤정, 김창환, 박영철, 양규철, 김광술, 유두현, 강문혁, 김현진, 이환호, 장용현, 김상국, 박건호, 유창근, 류동근)

송선영의 10명(경희대: 송선영, 박정숙, 김유경, 김선희, 마혜연, 이향연, 이경애, 김희진, 김태호, 조훈, 정영재)

(호신술)

오정주의 9명(경향청: 한상철, 남궁숙, 안효진, 유경선, 이영달, 이경택, 최무경, 주귀선, 광병만) 손태환의 1명(신촌체육관: 장원모)

이병직의 5명(남대문경찰서: 이웅걸, 이정철, 김노경, 임성진, 박은주)

이정민 1명(체과대: 한치훈) 문성대의 2명(한체대: 양재철, 박병순) 이규현(이규현체육관)

고 단 자

92년도 제3차 고단자 실사 합격자명단 (0.10. 국기원)

6 단

- ▲ 서울: 조지훈 김정목 김종설
이봉학 김용호 고기판
장행욱 이강영
 - ▲ 부산: 박성술 조홍종 권영욱
이삼조
 - ▲ 인천: 박형규 이홍수
 - ▲ 대구: 권오근
 - ▲ 대전: 윤여진
 - ▲ 경기: 김희삼 정성교 신동원
김충진 이용기
 - ▲ 경남: 김 면 전만옥 신귀태
문재일
 - ▲ 경북: 김우환 이성국
 - ▲ 전남: 윤성수 김성봉 문병일
 - ▲ 전북: 정삼연
- 7 단: 허송

- 이영명 박명수 백의현 이재관
- 김진수 정진섭 최연우 황득기
- 김연수 김지항 염부갑 박종승
- 안호선 정용인 구충규 김찬구
- 신용호 장덕연 민삼문 장규성
- 김기근 신영준 장충익 유남길
- 박용운 김전식 김순길 한혜수
- ▲ 부산
- 변흥민 석홍규 장기철 강상민
- 김상수 최신재 김수환 고영주
- 한규성 지형진 김봉근 전해수
- 왕무상 심우현 안시욱 박영재
- 재홍모 이동운
- ▲ 대구
- 정복환 박정선 김현석 허운출
- 윤병원 안윤호 구명규 최경환
- 정한진 김용기 김정현 이동욱
- ▲ 인천
- 최돈민 고연성 황하성 배광식
- 손진성 함인주 채대성 박찬만
- 오병구 방영욱 이진용
- ▲ 광주
- 박천석 이광수 이 철 정민용
- 이양림 안창복 송상운
- ▲ 대전
- 허원선 최종훈 김병렬
- ▲ 경기
- 신정식 윤현정 조종오 김창호
- 이종길 김범철 유승원 박명구
- 신재준 이상우 김성철 오완섭
- 황규현 김병수 임왕규 이화윤
- 전용선 한광섭 손상돈 안창복
- 유승표 김영구 박영구 이기훈
- 김제하 최영호
- ▲ 강원
- 김용태 류예준 박동선 유병렬
- ▲ 충남

- 전용복 정창식 박용순 신연호
- 김현수 박철순 권재일 박문식
- 임난희
- ▲ 충북
- 박정혁 김정모 김우경
- ▲ 경남
- 윤병철 김태형 구교진 박성범
- 이우희 여광운 이성도 강철중
- 조성재 성용근 문용주 김대용
- 정철우 최송학 이병준
- ▲ 경북
- 이덕원 박병표 심원섭 한주석
- 김유돈 최종철 신창기 김이규
- ▲ 전남
- 박상준 김홍민 안용철 김지연
- 이병현 이용운 김대익 정영균
- ▲ 전북
- 하상오 진영식 윤경모 최승원
- 양성필 정경중 주기택
- ▲ 제주
- 고철호 부남철
- ▲ 국태부
- 윤경연 백성경 최영우 이승훈
- ▲ 기타
- 홍영표 남일희 이정호 이우영
- 홍봉자

사 범

제72기 태권도사범 합 격자 명단 (0.17~30. 국기원 연수원)

▲ 서울

- 신태환 이상춘 박태일 김병인
- 정철호 한원덕 김교철 한승현
- 나영인 송 숙 김동규 김진홍
- 서대원 심인섭 김철남 이강희
- 김원희 김진용 이종구 서제경
- 송영규 임종우 김영덕 배기석

제73기 태권도사범 합 격자 명단 (11.17~30. 국기원 연수원)

▲ 서울

- 이종규 정호찬 정 훈 서호성
- 최병상 김상진 김영호 안병덕
- 김태형 윤은섭 김종주 윤성조
- 김대성 이현식 박홍주 임준계
- 박원중 황성술 김일상 고만재
- 김민수 최영환 이재훈 정일국

정지섭 홍수진 손연만 강석봉
 강문철 김원태 심영탁 박민휘
 장순민 김태현 남정진 김호길
 박선희 김홍숙 손종명 손용진
 박영수 김성환 유상일 석진우
 오창룡 이정기 박준선 정용균
 김소철 한두수 임두섭 유창석

▲ 부산
 소병위 황양곤 김평수 서민용
 오성환 최동순 이재우 김성동
 박제춘 김동식 최정훈 이재호
 추성길 박태용 황종성 김권중

▲ 대구
 이희균 진만식 유경식 조제수
 이정원 배진국 강수원 이강민
 박기창 현정숙

▲ 인천
 박상중 김미년 백광일 김영국
 신용국 한재균 이기현 김학목
 김유창 조영근

▲ 광주
 임병일 윤석주 김재덕 신석호
 이강수

▲ 대전
 황경현 문제수

▲ 경기
 김연부 박춘열 이형철 홍기욱
 조철휘 김흥기 정기창 박경희
 김선기 정희환 박성관 오문섭
 이윤희 황인성 이근덕 박종영
 김태훈 임영진 김신덕 김상수
 이남호

▲ 강원
 신종호 허인구 이병열 허영배
 이광익

▲ 충남
 임경빈 강영수 김석승 최정우
 김경수

▲ 충북
 김기복 이용길

▲ 경남
 백진승 김국영 안창정 노동관
 한정수 최대권 황일호 김수주

▲ 경북
 김시업 김윤호 장창영 안정민
 이수재 민정출 정춘용 김재원
 김명관

▲ 전남
 김호천 김세근 문순현 오 송
 장계주 김현중 강준형

▲ 전북
 이상현 김성훈 김성원 김이봉
 김종관 정순진

▲ 제주
 홍창훈

▲ 국대부
 김종주 황남선 기명수 박정근
 전세곤 이인재

▲ 경찰청
 이용식

▲ 기타
 한명숙 김은숙 박종석 김춘근
 정승환

국 제 대 회

제 3 회 세계대학 태권 도선수권대회 (10.12~15, 멕시코 파달라 하라대학교 체육관)

(남자부)

▲ 핀급
 1위: 김정오(한국)
 2위: HATTORI DAISUKE

(일본)

3위: CARLOS PRENP D.
 (멕시코)
 TORALDO VITO(이탈
 리아)

▲ 플라이급

1위: 맹성재(한국)
 2위: AYALA YEE AGU-
 STIN(멕시코)
 3위: SHAO HUNG CHE-
 NG(중화대륙)
 STURARI SIMONE
 (이탈리아)

▲ 밴텀급

1위: 김병욱(한국)
 2위: RAFAEL ZUNIGA(멕
 시코)
 3위: MARCIAL, BASAN-
 TA(쿠바)
 ELBERT KIM(미국)

▲ 페더급

1위: 안홍엽(한국)
 2위: VALENTIN SANCH-
 EZ(스페인)
 3위: HIROYUKI YAMAS-
 HITA(일본)
 FERNANDO DORAN-
 TES(멕시코)

▲ 라이트급

1위: 박세진(한국)
 2위: ROBERTO ABREU
 (쿠바)
 3위: PASCUAL CANO
 (스페인)
 VICTOR LUKE
 (캐나다)

▲ 웰터급

1위: VICTOR M ESTRA-

DA(멕시코)

2위: TSU I EN LIU(칠레)

3위: 김광수(한국)

JAE HOON LEE(캐나다)

▲ 미들급

1위: 박종범(한국)

2위: HUGO E. GARCIA B.(멕시코)

3위: JAMES CHOI(미국)
MING HSUING HO(칠레)

▲ 헤비급

1위: 강승수(한국)

2위: PAO YI WU(칠레)

3위: NELSON SAENZ MILLER(쿠바)
KEITH SAUNDERS(캐나다)

(여자부)

▲ 핀급

1위: 유수진(한국)

2위: YA LIN CHENG(중화대북)

3위: AGUEDA REREZ(멕시코)
MICHELLE ALI(미국)

▲ 플라이급

1위: HUI WEN TANG(중화대북)

2위: MUGGIRI PIERA(이탈리아)

3위: 장이숙(한국)
TERRY POINDEXTER(미국)

▲ 밴텀급

1위: 이승민(한국)

2위: MEI HUA CHEN(중화대북)

3위: HATANAKA MEGUMI(일본)
LYNN R SYLMAR(미국)

▲ 페더급

1위: DANIELA V. CHAVER A.(멕시코)

2위: 김성숙(한국)

3위: CARLA FORTNEY(미국)
YA LING TUNG(중화대북)

▲ 라이트급

1위: CHAO CHING LIU(중화대북)

2위: SONY SEIDEL(독일)

3위: BERTHA JAUREGUI A.(멕시코)
MA DEL COMESANA R.(스페인)

▲ 웰터급

1위: ELENA BENITEZ M(스페인)

2위: 조향미(한국)

3위: LAZARA C ZALLAS(쿠바)
REGINA PLUTH(미국)

▲ 미들급

1위: CORAL BISTUER RUIZ(스페인)

2위: ANKE GIRG(독일)

3위: MONICA DEL REAL J.(멕시코)
이성미(한국)

▲ 헤비급

1위: 윤현정(한국)

2위: BETTINA HIPF(독일)

3위: CHRISTINA BAYLEY(미국)
ANNA WIDEHOU(스웨덴)

3 내 대회

제 73 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10.11~15 대구계명체육관)

(고등부)

▲ 핀급

1위: 소병관(동성고)

2위: 장준호(광양고)

3위: 김현식(강대부고)
김홍일(대전체고)

▲ 플라이급

1위: 고동완(전북체고)

2위: 김남우(송곡고)

3위: 김영록(광주체고)
정창욱(영천고)

▲ 밴텀급

1위: 조진호(여수고)

2위: 이임수(개금고)

3위: 이동규(대전체고)
김형원(선인고)

▲ 페더급

1위: 장덕진(리라공고)

2위: 김은철(여수고)

3위: 박민섭(광주체고)
최성진(천안중앙고)

▲ 라이트급

1위: 김진(경상공고)

2위: 이승희(대전체고)

3위 : 박승현(광주체고)
천창영(동성고)

▲ 윌터급

1위 : 김동민(충북체고)
2위 : 엄태호(송곡고)
3위 : 이준수(강대부고)
이재성(대전체고)

▲ 미들급

1위 : 이동완(서울체고)
2위 : 박정태(경상공고)
3위 : 신원조(부산체고)
빙원철(여수고)

▲ 헤비급

1위 : 하종산(국체고)
2위 : 김길곤(리라공고)
3위 : 김판수(송도상고)
이명하(경상공고)

(대학부)

▲ 핀급

1위 : 진승태(한체대)
2위 : 유성호(체과대)
3위 : 김진일(계명대)
문성대(한체대)

▲ 플라이급

1위 : 조현식(조선대)
2위 : 여원재(계명대)
3위 : 이무현(관동대)
이정훈(군산대)

▲ 밴텀급

1위 : 성대중(한체대)
2위 : 김진홍(군산대)
3위 : 박형식(한체대)
서덕수(한체대)

▲ 페더급

1위 : 김정호(경희대)
2위 : 김원철(한체대)
3위 : 양재철(한체대)
곽택용(한체대)

▲ 라이트급

1위 : 김길훈(경원대)
2위 : 김혁원(단국대)
3위 : 강재구(계명대)
민정승(충남대)

▲ 윌터급

1위 : 박세홍(경희대)
2위 : 손원기(계명대)
3위 : 양원철(청주대)
장종오(체과대)

▲ 미들급

1위 : 이철우(관동대)
2위 : 강동국(동아대)
3위 : 이성훈(한체대)
김정규(경희대)

▲ 헤비급

1위 : 이현석(동아대)
2위 : 박형래(한체대)
3위 : 김봉근(경희대)
서현석(단국대)

(일반부)

▲ 핀급

1위 : 유창호(전남협회)
2위 : 장영길(대덕구청)
3위 : 이만식(현대정공)
강철우(상무)

▲ 플라이급

1위 : 나광운(광주협회)
2위 : 한지환(전남협회)
3위 : 이광우(춘천군청)
이승욱(현대자동차)

▲ 밴텀급

1위 : 이종현(국군체육부대)
2위 : 장대진(국군체육부대)
3위 : 김철호(현대자동차)
남성길(청호체육관)

▲ 페더급

1위 : 강창모(부산시체육회)

2위 : 함 준(전주시청)
3위 : 임성욱(현대정공)
임석섭(지하철공사)

▲ 라이트급

1위 : 양대승(전북협회)
2위 : 이육근(춘천군청)
3위 : 장 혁(지하철공사)
정일권(부산협회)

▲ 윌터급

1위 : 김태형(국군체육부대)
2위 : 박종상(보령군청)
3위 : 조광천(현대정공)
김성태(광주협회)

▲ 미들급

1위 : 박은석(전남협회)
2위 : 윤순철(상무)
3위 : 공한석(금복주)
김병기(광주협회)

▲ 헤비급

1위 : 김재경(상무)
2위 : 강철규(금복주)
3위 : 홍용기(상무)
최상진(전북협회)

제 1 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11.3~7, 상무체육관)

(군선수)

▲ 핀급

1위 : 강경호(해병작전사령부)
2위 : 남규현(육군직할)
3위 : 이상진(공군사령부)
김진원(1군사령부)

▲ 플라이급

1위 : 신민호(육군직할)
2위 : 김성명(2군사령부)
3위 : 서원보(공군사령부)

이상화(1군사령부)

▲ 뱀텀급

- 1위 : 박기정(1군사령부)
- 2위 : 서민관(해병작전사령부)
- 3위 : 박신길(해병작전사령부)
서진환(2군사령부)

▲ 페더급

- 1위 : 김태형(육군직할)
- 2위 : 조영남(3군사령부)
- 3위 : 안정철(2군사령부)
정순호(해병작전사령부)

▲ 라이트급

- 1위 : 양춘열(1군사령부)
- 2위 : 송경민(육군직할)
- 3위 : 장종원(3군사령부)
이주철(해병사령부)

▲ 웰터급

- 1위 : 이동희(해군사령부)
- 2위 : 남윤호(해병사령부)
- 3위 : 김성진(3군사령부)
김용천(육군직할)

▲ 미들급

- 1위 : 한삼석(해병사령부)
- 2위 : 정영수(1군사령부)
- 3위 : 최충묵(3군사령부)
최승민(2군사령부)

▲ 헤비급

- 1위 : 양승득(육군직할)
- 2위 : 배영태(2군사령부)
- 3위 : 이병하(3군사령부)
윤현(1군사령부)

(남자일반부)

▲ 핀급

- 1위 : 전수옥(보령군청)
- 2위 : 김태실(팔봉전산)
- 3위 : 이정원(상무)

▲ 플라이급

- 1위 : 임창섭(상무)
- 2위 : 이화진(상무)
- 3위 : 박찬수(체육선교신학교)
김태훈(대덕구청)

▲ 뱀텀급

- 1위 : 이종현(상무)
- 2위 : 남학현(상무)
- 3위 : 이상민(체육선교신학교)
노창식(충남협회)

▲ 페더급

- 1위 : 김용만(상무)
- 2위 : 김병철(상무)
- 3위 : 이두상(코오롱)
김정렬(보령군청)

▲ 라이트급

- 1위 : 김경일(체육선교신학교)
- 2위 : 고유설(체육선교신학교)
- 3위 : 인현순(상무)
강진우(상무)

▲ 웰터급

- 1위 : 조제춘(상무)
- 2위 : 김태형(상무)
- 3위 : 이재주(체육선교신학교)
최창원(보령군청)

▲ 미들급

- 1위 : 정주석(상무)
- 2위 : 유명원(보령군청)
- 3위 : 류계민(체육선교신학교)

▲ 헤비급

- 1위 : 홍운기(상무)
- 2위 : 김재경(상무)
- 3위 : 조용희(체육선교신학교)
이민권(팔봉전산)

(남자대학부)

▲ 핀급

- 1위 : 진승태(한체대)
- 2위 : 김정오(경원대)
- 3위 : 문성대(한체대)

조영국(동아대)

▲ 플라이급

- 1위 : 지재기(동아대)
- 2위 : 박재성(한체대)
- 3위 : 성태경(인천체전)
장대순(한체대)

▲ 뱀텀급

- 1위 : 김인경(한체대)
- 2위 : 김민수(한체대)
- 3위 : 김재철(인천전문대)
서성규(한체대)

▲ 페더급

- 1위 : 천현옥(경원대)
- 2위 : 소대호(단국대)
- 3위 : 김성훈(한체대)
심성구(동아대)

▲ 라이트급

- 1위 : 김성진(한체대)
- 2위 : 박의경(한체대)
- 3위 : 정광태(한체대)
서승민(인천전문대)

▲ 웰터급

- 1위 : 김광수(한체대)
- 2위 : 황혁모(단국대)
- 3위 : 김호(동아대)
김길훈(경원대)

▲ 미들급

- 1위 : 박종범(한체대)
- 2위 : 강동국(동아대)
- 3위 : 홍중수(한체대)
이성우(인천전문대)

▲ 헤비급

- 1위 : 이현석(동아대)
- 2위 : 안종혁(단국대)
- 3위 : 이재영(성균관대)
서정규(경원대)

(여자부)

▲ 핀급

- 1위: 강선경(상명여대)
- 2위: 김희화(체육선교신학교)
- 3위: 서영애(남자회)
도재선(남자회)

▲ 플라이급

- 1위: 모선영(한체대)
- 2위: 장이숙(상명여대)

▲ 밴텀급

- 1위: 정유경(상명여대)
- 2위: 박은미(성신여대)
- 3위: 황태경(동명전대)

▲ 페더급

- 1위: 양은정(성신여대)
- 2위: 윤 희(한체대)
- 3위: 추난률(한체대)
김성숙(성신여대)

▲ 라이트급

- 1위: 박정희(한체대)
- 2위: 윤명숙(상명여대)
- 3위: 김혜선(체과대)
이미라(성신여대)

▲ 웰터급

- 1위: 박선미(상명여대)
- 2위: 이영미(성신여대)
- 3위: 신경숙(인천전문대)

▲ 미들급

- 1위: 이은주(성신여대)
- 2위: 이종원(중부산업대)
- 3위: 안 숙(체과대)
김은주(한체대)

▲ 해비급

- 1위: 박은주(상명여대)
- 2위: 김태희(성신여대)
- 3위: 한옥미(남자회)
백현정(중부산업대)

(11.11~13,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문성대(한체대)
- 2위: 진승태(한체대)
- 3위: 최용훈(동아대)
윤종일(풍생고)

▲ 플라이급

- 1위: 맹성재(경희대)
- 2위: 김인동(풍생고)
- 3위: 고동환(진북체고)
이화진(국군체육부대)

▲ 밴텀급

- 1위: 김현용(경희대)
- 2위: 김형원(선인고)
- 3위: 성대중(한체대)
서덕수(한체대)

▲ 페더급

- 1위: 안홍엽(체과대)
- 2위: 강성용(동아대)
- 3위: 김정호(경희대)
심성구(동아대)

▲ 라이트급

- 1위: 신평수(한체대)
- 2위: 정광채(한체대)
- 3위: 박기채(한체대)
홍종우(충북체고)

▲ 웰터급

- 1위: 장종오(체과대)
- 2위: 송 민(리라공고)
- 3위: 김광수(한체대)
김 호(동아대)

▲ 미들급

- 1위: 이현석(동아대)
- 2위: 이동환(서울체고)
- 3위: 홍종수(한체대)
최승길(체과대)

▲ 해비급

- 1위: 김재경(국군체육부대)
- 2위: 심재섭(동성고)
- 3위: 김봉근(경희대)
강한구(리라공고)

(여자부)

▲ 핀급

- 1위: 이순영(고양공고)
- 2위: 최한솔(경성여고)
- 3위: 최영아(자양중)
김진성(송곡고)

▲ 플라이급

- 1위: 이화진(경희대)
- 2위: 유수미(리라공고)
- 3위: 조미라(철산여중)
김지향(광명상고)

▲ 밴텀급

- 1위: 진용순(광명상고)
- 2위: 정유경(상명여대)
- 3위: 원선진(효원고)
이은양(천민여상)

▲ 페더급

- 1위: 이승민(경희대)
- 2위: 권혁실(체과대)
- 3위: 신동선(리라공고)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1위: 박정희(한체대)
- 2위: 박경숙(은광여고)
- 3위: 김미선(주덕고)
김옥남(배성여상)

▲ 웰터급

- 1위: 김미영(체과대)
- 2위: 신은경(리라공고)
- 3위: 정윤경(송곡고)
박선미(상명여대)

▲ 미들급

- 1위: 이선희(체과대)

92년도 전국 남녀 우
수선수 선발대회

- 2위: 박혜영(경희대)
3위: 이은주(성신여대)
최민정(대원여중)

▲ 해비급

- 1위: 이용화(체과대)
2위: 추수연(체과대)
3위: 박은주(상명여대)
박영미(경희대)

▲ 최우수선수상

- 남자: 김계경(국군체육부대)
여자: 이승민(경희대)

▲ 지도자상

- 남자: 문원재(한체대)
여자: 권혁중(체과대)

제 18 회 연맹회장기 전국 국민학교 대회
(11.7~8. 안양중앙국교체육관)

(남자부)

▲ 핀급

- 1위: 김재원(송추국)
2위: 이윤재(단대부국)
3위: 장세휘(서릉국)
고동영(서귀중앙국)

▲ 플라이급

- 1위: 김상순(마장국)
2위: 박인수(덕천국)
3위: 박범진(은천국)
최일용(강덕국)

▲ 밴텀급

- 1위: 김정훈(신시흥국)
2위: 박태열(서귀중앙국)
3위: 신성배(상원국)
임병규(부원국)

▲ 페더급

- 1위: 최성호(은천국)

- 2위: 장재성(마장국)
3위: 이주봉(신시흥국)
최한석(강덕국)

▲ 라이트급

- 1위: 김재관(면목국)
2위: 진홍근(용인국)
3위: 조규봉(신시흥국)
김호식(서릉국)

▲ L-웰터급

- 1위: 김진호(상원국)
2위: 최형일(덕천국)
3위: 손두섭(은천국)
이승부(강덕국)

▲ 웰터급

- 1위: 이창희(신시흥국)
2위: 남연식(서릉국)
3위: 오원섭(정목국)
오우학(서호국)

▲ L-미들급

- 1위: 신성완(정목국)
2위: 안승완(덕천국)
3위: 조성후(서릉국)
지영진(마장국)

▲ 미들급

- 1위: 한전민(은천국)
2위: 전재훈(정목국)
3위: 강창욱(덕천국)
박동민(석수국)

▲ L-헤비급

- 1위: 홍춘식(오정국)
2위: 정광현(신시흥국)
3위: 이동수(강덕국)
강성렬(서릉국)

▲ 헤비급

- 1위: 서경환(천호국)
2위: 문주형(용인국)
3위: 오세훈(석수국)
이태경(염창국)

(여자부)

▲ 핀급

- 1위: 이세미(석수국)
2위: 조은별(강덕국)
3위: 권석경(정목국)
박병미(은수국)

▲ 플라이급

- 1위: 이진영(은천국)
2위: 서유리(석수국)
3위: 기세라(정목국)
배진(수창국)

▲ 밴텀급

- 1위: 윤성희(은천국)
2위: 전국진(정목국)
3위: 배진아(강신국)

▲ 페더급

- 1위: 김윤미(강덕국)
2위: 류선미(염창국)
3위: 송진영(강신국)

▲ 라이트급

- 1위: 황주영(강덕국)
2위: 최은미(보광국)
3위: 연운경(은천국)
유진주(강신국)

▲ L-웰터급

- 1위: 주지원(강덕국)
2위: 박혜진(석수국)
3위: 박지연(은천국)

▲ 웰터급

- 1위: 정효진(용인국)
2위: 김지우(강덕국)
3위: 홍지연(부림국)
홍지현(오정국)

▲ L-미들급

- 1위: 서진(은천국)
2위: 나지숙(석수국)
3위: 박지영(중앙국)
김혜영(금광국)

▲ 미들급

- 1위 : 이주영(석수국)
- 2위 : 전슬기(강신국)
- 3위 : 이상미(은천국)
- 양혜정(신례국)

▲ L-레비급

- 1위 : 남지영(강덕국)
- 2위 : 이보라(강신국)
- 3위 : 김덕인(은천국)
- 유진아(석수국)

▲ 헤비급

- 1위 : 남보라(석수국)
- 2위 : 이윤진(정목국)
- 3위 : 신정선(소래국)
- 오현정(금촌국)

93년 1~3월

행사 안내



- ▲ 1월 8일 : 이사회
- ▲ 1월 14일 : 정기 대의원 총회
- ▲ 2월 5일~6일 : 경기규칙강습회(코치·감독)
- ▲ 2월 11일~12일 : 경기규칙강습회(심판)
- ▲ 3월 2일~5일 : 9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남녀)
- ▲ 3월 9일~12일 : 93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남녀)
- ▲ 3월 29일~31일 : 93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남녀)
- ▲ 3월 13일 : '93년도 1차 고단자(6~9단)승단심사
- ▲ 3월 18일~31일 : 제74기 사범교육 및 3급 사회(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국기원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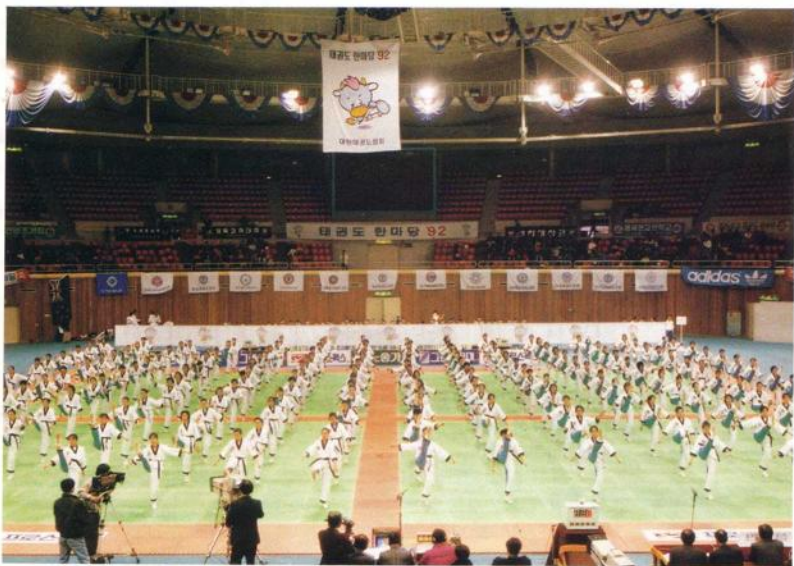
제1회 태권도 한마당 '92

TAEKWONDO HANMADANG '92

92. 12. 9-11,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태권도를 무도정신이 깃든 범국민적 생활체육으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태권도 한마당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생활속의 태권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일반관중들과 전국의 시청자에게 태권도의 절도있는 품새와 격파의 위력을 보여준 태권도 한마당 경연대회에는 5살의 어린이부터 80살 할아버지까지 출전, 가히 국기 태권도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힘과 技, 정신력의 조화”



▲ 2백명의 은광여고 학생들이 흥겹고 멋진 건강품새를 보이면서 생활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 개회식 모습



▲ 공중돌아 두발차기 격파



◀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기와를 격파하며 태권도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격파경연모습.



◀ 제4대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노병직씨(73세)가 품새를 보이며 무도인의 건강함과 정신력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발차기에 송판이 갈라지고 있다.



◀ 태권도 동작을 바탕으로 체조나 에어로빅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전신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강품새는 가장 인기를 끌었다.



◀ 은광여고팀의 건강공세



▲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메던 태권소녀 이명순양이 건강을 되찾고 태권도 한마당잔치에 나와 태권도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 태권도의 품새와 전통한국무용을 접목한 태권무「천지의 혼」을 공연해 찬사를 받은 범기철사범.(도쿄한국학교교사)



▶ 「태권도한마당'92」평가회 92.12.23. 올림픽회관 2층 귀빈실에서 전채운영 및 종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숙의했다.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The 73rd National Sports Festival
Taekwondo Competition.

92.10.11-16.대구계명대체육관

「알뜰체전·화합체전·통일체전」의 슬로건 아래 달구벌을 뜨겁게한 전국체육대회에는 15개 시도지부와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등 해외동포팀 37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서울시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점음과 패기가 용솟음 친 달구벌 체전”



▶ 서울시는 고등·대학·일반부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
우승, 홈팀인 대구는 2위, 3위는
전남이 차지했다.



▲ 힘찬 뒷차기의 위력



▲ "고장의 명예를 드높여라" 필승을 성원하는 응원단.



92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This Year's Best Player Tournament.

92.11.11-13, 국기원

올해 전국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이번 대회의 체급별
1, 2위자는 93년 3월에 개최될 93년도 국가
대표 최종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올해의 최우수선수로 김제경, 이승민 뽑혀



▲대표선수 선서



◀남자부 올해의 체급별 최강자

▶ 올해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제경
선수 (국군체육부대), 이승민선수
(경희대)



◀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 여자부 8계급 우승자들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The 3rd FISU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92. 10. 12-15, 멕시코 과달라하라

19개국 13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교 200주년을 맞은 과달라하라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강적 중화대륙, 미국, 홈팀 멕시코의 도전을 일축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녀부 종합우승, 대회 3연패 차지



◀ 한국대표선수단의 이정길단장(대학연맹 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선전을 당부하는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한국대표선수단은 1, 2회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계기를 올렸다.

제18회 국민학교연맹회장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The 18th National Championships for
Presidential Flag.

92. 11. 7-8, 안양중앙국민학교체육관

남자부 신시흥국, 여자부
강덕국 최강 자랑

▼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태권도 꿈나무 선수들.

▲ 대표선수선서



제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The 1st Championships for
National Defense Minister's
Flag.

92. 11. 3-7, 상무체육관

- ▶ 최세창 국방부장관 겸 대한태권도협회장이 국군장성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 ▶ 개최식 식후공개행사에서 미동국교어린이시범단이 멋진 격파실력을 보여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군화합의 마당으로 창설된 이 대회는 남자일반, 남자대학, 여자부, 군선수단 등 4개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가 펼쳐졌는데 총 34개팀에서 270명이 출전했다.

- ◀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한체대선수단. 2위는 동아대, 3위는 경원대가 차지했다.

민·군화합과 태권도 저변확대위해 창설



◀ 여자부 시상식.
우승 상명여대,
2위 성신여대,
3위 한체대



▶ 상무팀 선수가 힘찬 원발 돌려차기를 하고 있다. 상무팀은 남자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